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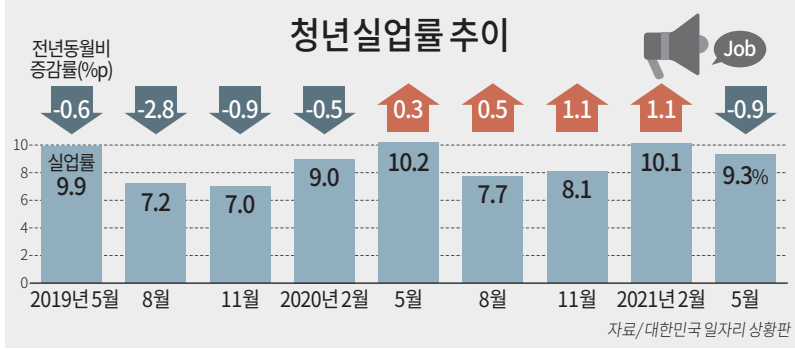
[해설] 여론 등 돌리자 쿠팡, 물류센터 지원 등 대응책 마련 03



Economy

코스피	3286.10 (+9.91)	코스닥	1012.62 (-3.84)
금리 (미국 3개월)	1.384 (+0.046)	환율 (원-달러)	1134.90 (-2.80) (24일)

m-커버스토리



고용절벽 내몰린 청년 불안감에 창업의 길로

일자리의 변화

일자리가 바뀌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이나 스타트업 등 창업으로 뛰어드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비정규직 유형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률, 일반실업률 2배
코로나 여파 신규채용 감소
취업보다 스타트업·창업 ↑

정규·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대·중소 간 임금 격차도 확대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노년층도 노후가 불안해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2년째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같은 일자리의 변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당

시 8.1%였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9%까지 높아졌다.

반면 15세 이상 일반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한때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엔 4%를 기록하며 10년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 두배가 훌쩍 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는 경력에 비해 신입이 들어갈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기업들이 가뜰이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경력자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타트업에 도전하거나 청년가게 등을 여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종로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오모씨는 "군대에 다녀와 23세때부터 가게를 차렸다. 준비기간 없이 개업하다보니 처음 2년은 고생이 많았다. 투잡을 하며 월세를 내면서 버텼다. 독학으로 바리스타1급 자격증도 땀다. 그후 본게도에 올라 하루에 400~500잔을 팔기도 했다.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창업해야 한다. 안그러면 100% 망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개인기업의 경우 109만개(2016년)→116만개(2017년)→124만개(2018년)→118만개(2019년)→136만개(2020년)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같은 창업 불현상은 정부의 예산 지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베이 품은 신세계, 온라인·디지털 '새판'

신세계, 3.4조에 이베이 인수 확정 "미래 유통, 온라인 강자만 생존"

신세계그룹의 사업구조가 '온라인과 디지털'로 180도 전환한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미국 본사와 이베이코리아(이하 이베이) 인수를 위한 '지분 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수 가액은 약 3조4000억원이다.

신세계 측은 "미래 유통은 온라인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이번 인수는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사는 딜"이라고 설명했다.

명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며, 이베이 인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올 초 신년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근성'을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베이는 외형 면에서도 인수 완료 즉시 그룹 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세계의 사업 포트폴리오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뤄져 신세계그룹이 온-오프 통합 확고한 국내 1위 유통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이마트 부

문 내 온라인 비중이 약 50%에 달해, 미래사업의 중심축이 온라인과 디지털로 대전환 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신세계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디지털 에코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최근 인수한 SSG랜더스야구단 및 이베이와 SSG닷컴 등 온라인 종합 플랫폼까지 갖추게 되면, 어디서나 모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온-오프 '360 에코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트로신문 '2021 퓨처푸드테크 코리아' 개최

조단 테트릭(Jordan Tetric) '잇저스트' 글로벌마케팅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1 퓨처푸드테크 코리아'에서 영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車 이어 조선업계도 노사 임단협 진통

현대·지엠·르노삼성 입장차 여전
현대중, 파업 결정에 불안감 확산

국내 산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초대형 악재가 사라지며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산업계가 살아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계가 노조 등살에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의 포문을 열었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기 휴가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빠른 지난달 26

일 노사간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주요 안건으로 임금인상과 전년 동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현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늘려달라는 정년연장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동결과 무분규 교섭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노조는 내달까지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 8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노조측은 "해외공장 투자로 인

한 조합원 불신이 큰 당대에 노조와 상의도 없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5만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 조합원 사이에서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노노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지엠도 지난달 말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에 본격 나섰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3년간 임금동결한 만큼 올해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의 노조 제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델타 변이 유입 방지 위해 방역강화국가 지정 검토"
▲ "박성민 발탁"이 정의나' 문자 노동장관 "뉘라 말씀드릴 수 없어" (사진 뉴스)

▲ 원희룡 "국힘, 윤석열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질 위기감 가져야"
▲ 이준석 "공수처, 국민에 불편함 없어야"... 김오수 "중립 지킬 것"



▲ '복당' 홍준표 "만아들 돌아왔다... 도덕성·경륜 대선후보로 정권교체" (사진 뉴스)
▲ 정세균, 경선 9월말~10월초 절충안에 "연연하지 않아... 절차가 중요"

‘백신접종 순조’ 소비심리 살아나 집값·물가·금리 동반 상승 전망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

CCSI 110.3으로 6개월째 상승세
기대인플레이션 2.3%... 0.1%p 올라

소비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다. 개선된 소비심리와 함께 집값은 물론 향후 물가와 금리도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 여섯달 연속 상승세다. 반등폭도 더 확대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기준값 100보다 크



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과 수출 호조 지속,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회복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전월과 같은 수

준을 유지했으며, 6개월 뒤를 전망하는 생활형편전망CSI도 99로 2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수입전망은 100, 소비지출전망은 113으로 전월 대비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94로 8포인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9로 10포인트나 뛰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 지수 자체도 기준치인 100을 크게 웃돌고 있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 시각이 우세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7로 전월 대비 1포인트, 금리수준전망지수 역시 124로 6포인트나 높아졌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노동계, 경영계에 선전포고

“생계보장 등 위해 인상 불가피”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미정’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월급 225만7200원.” 노동계가 먼저 선전포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과 최저임금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추후 최초 요구안을 낼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 월급 225만72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급은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를 환산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며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은 30원 많은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8720원) 대비 23.9% 올린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경영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4년간 온라인 풀필먼트에 1조 집중투자

>> 1면 ‘이베이 품은 신세계’서 계속

신세계 그룹은 이베이 인수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도적 사업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충성도 높은 이베이의 270만 유료고객과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셀러를 얻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극강의 온라인 기업’으로 완벽히 탈바꿈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 IT 전문가 확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베이의 숙련된 IT 전문가를 얻게 돼 온라인 사업의 규모

와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세계그룹이 국내 최고 유통기업으로서 쌓아온 오프라인 운영 노하우와 물류 역량을 이베이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장보기부터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종합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하고, 통합매입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져 ‘완성형 이커머스 모델’에 다가설 전망이다.

최첨단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의 노하우를 바

탕으로 향후 4년간 1조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집중 투자하고,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는 당일배송 등을 통해 셀러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이베이의 대량 물량을 기반으로 센터 가동률을 높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그룹은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유통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부동산 중심의 그룹 자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 투자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산의 디지털화’도 병행해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우조선, 기업결합 노조반대 거세

>> 1면 ‘후 이어 조선업계도’서 계속

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초 서버이벌 플랜을 통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노사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존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째 임단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수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서다. 다만 기업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사 갈등으로 흥여를 잃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매각 반대 운동을 전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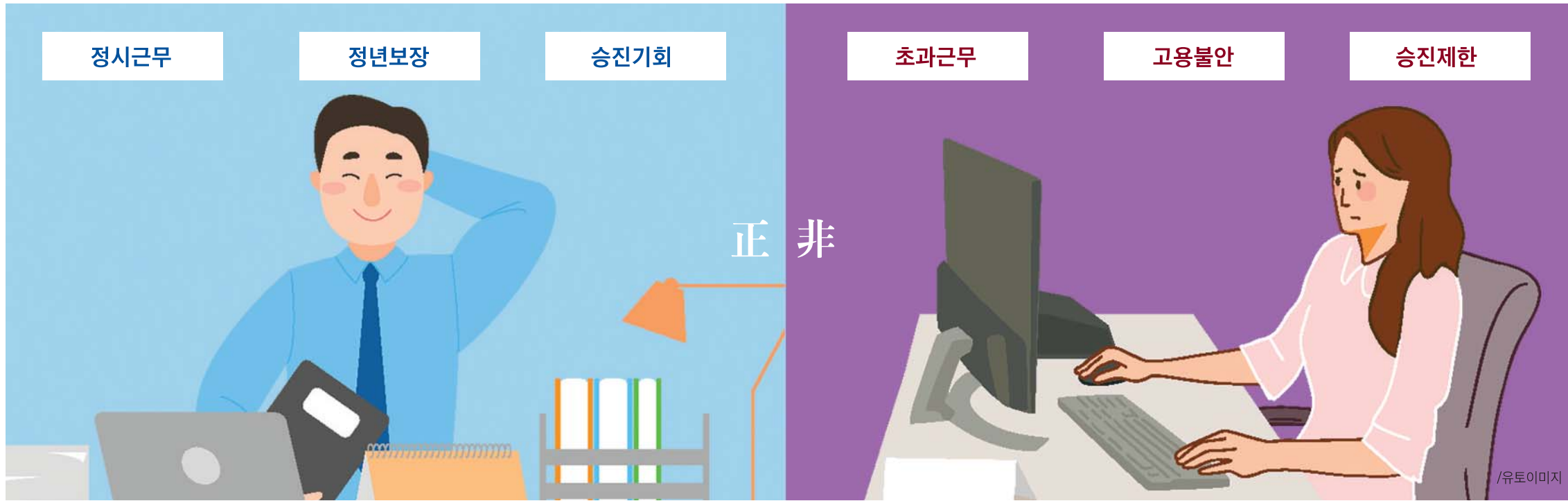
고 있어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2일 제94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6~9일 매일 8시간씩 전면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의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2019·202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4월 총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사측과의 교섭이 재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연일 수주 낭보를 전하며 순항하던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파업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수주 목표 80% 이상을 달성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하반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노사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르면 올해 말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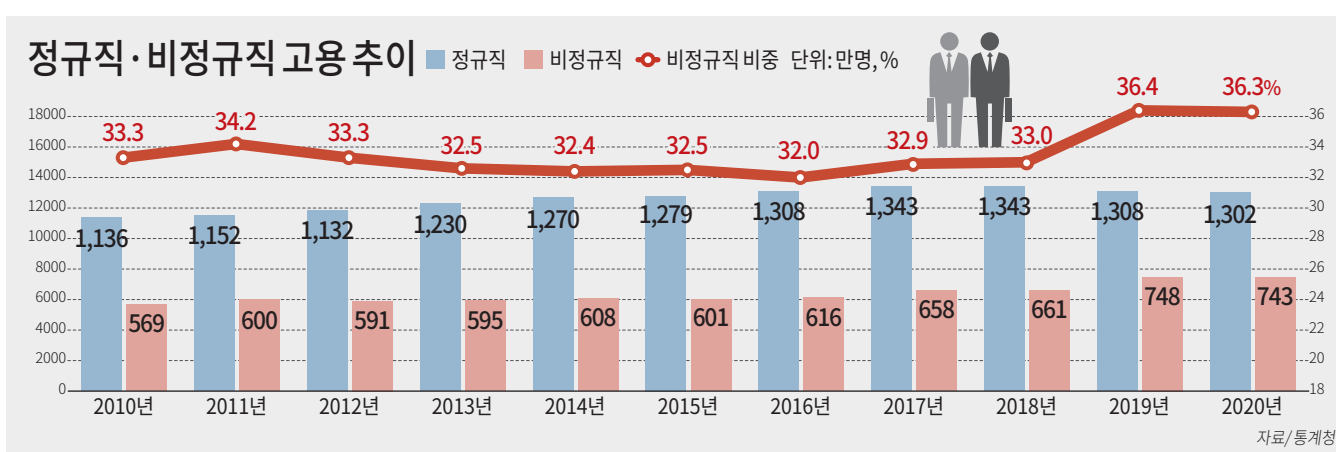
차별에도 저항 못 하는 비정규직... “甲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을’이지만 을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도 저항하지 못하는, 항의해도 쉽게 묵살당하는 비정규직이 있다. “갑의 눈 밖에 날까봐 그렇죠.” 서울의 사립 OO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범(가명) 씨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마저 전공의의 과로사를 부르는 합법적 도구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법, 40시간 초과근무 허용 법정근무시간 지켜도 과로사 위험 “1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연속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응급상황인 경우, 4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의 수련 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88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최대 주 88시간-연속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법화시켜놓은 셈이다.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더라도 과로사의 위험에는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테프’를 통해 지난 4월 공개한 ‘2020년 전국 전공의의 병원 평가’ 결과를 보면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었다. 김 씨는 “88시간을 훌쩍 넘



겨 1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잠은 포기”라고 전했다.

김씨는 “사회에선 의사라면 몽둥고려 갑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 안에서 철저한 을이다. ‘환자 생명이 걸려있다’는 부담에 살인적인 초과 근무를 참는 것도 있지만 상급자 눈 밖에 드는 것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권과 관련해 수면권, 식사권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다. 하지만 사회는 ‘미래에 돈 많이 벌’의사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목소리를 내도 ‘그래봤자 너네는 돈 많이 벌 거잖아’라며 쉽게 묵살당한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해 지도교수나 상급연차 전공의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이 고질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1만5300여

명(2020년 8월 기준)의 수련의는 피교육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이러한 상승적인 성추행, 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을 감내하고 신고조차 꺼림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병원에 따라 무급 전임의도 있다.

기간제 교사, 부당한 대우에도 썩 정규직 순환 시스템에 재취업 우려 “그저 시험 떨어진 실패자로 인식”

기간제 교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8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지난해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이지혜(가명) 씨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한 을’이었다고 평했다. 비정규적이던 8년간 그는 대부분 가기 꺼려하는 학생부, 중학교 1학년 담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야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5년마다 정규직 교사가 순환하는 시

스템에서 ‘소문이 사람보다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규직 동료 눈 밖에 나면 나쁜 평판이 생겨 2년 뒤 재취업해야 하는 다음 근무지 취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씨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비해 내가 하는 일은 그대로, 아니 더 줄었다. 가르치는 내용도, 실력도, 그리고 교사인 나 자체도 그대로지만 정규직이 되고 차별이 사라졌다”면서 “을의 입장에서 동일노동 동일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사회인식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일 뿐 모든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 김재식 정책위원장, 김은지 연구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에서 “노동자가 차별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판정 절차가 복잡해 판정이 내려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들이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판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지난해(8월) 기준으로 742만6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2044만6000명 가운데 36.3%다.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11년 당시 비정규직 비중은 34.1%였다. 중간에 통계 집계 방식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40%를 향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상 기간제, 비기간제로 나누는 한시적 근로자 그리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로 구분되는 비전형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갑’의 눈 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했던 전공의 김씨,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더 달라며 말조차 하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 이씨, 새벽 4시 첫 차를 타고 건물 청소일을 나가는 박씨, 더운 여름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경비원 고씨 등이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

/조효정·나우리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비정규직 임금 월 평균 171만원... 정규직 52.9% 수준

» 1면 ‘고용절벽 내몰린 청년’서 계속

중기부의 창업 관련 예산반해도 2016년 당시 연간 3766억원에서 2018년엔 6911억원으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8492억원까지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는 대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둘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로 경력을 채용하는 관행이 늘어나며 신입으로 들어가 경력을 쌓을 자리가 부족해졌고, 대학 내 창업동아리나 보육센터 등의 활동도 제약을 받아 창업 열기도 주춤하고 있

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은 더욱 늘고, 일자리간 임금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당시 32.2%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6.4%, 2020년엔 36.3%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2019년 조사부터 그동안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되면서 2018년 이전 수치와 비교가 어렵다는게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은 2015년(32.4%)→2016년(32.8%)→2017년

(32.9%)→2018년(33%)을 거치면서 늘었다.

비정규직이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등으로 갈수록 다양화하면서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세다.

월평균임금은 2013년 대비 2020년 현재 정규직이 255만1000원에서 323만4000원으로 26.8%, 비정규직은 143만4000원에서 171만1000원으로 19.3% 각각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3년 56.2%에서 2020년 52.9%로 더 벌어졌다.

평균근속기간도 정규직은 2013년 당시 85개월에서 지난해엔 97개월로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0개월에서 29개월로 오히려 줄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돈도 덜 받고, 더 짧게 일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대기업의 월 평균소득은 1인당 515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45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플랫폼 종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시운전, 화물운송 등이 모두 플랫폼 종사자 영역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0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 이 가운데 일감배정 등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노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유형의 경제체제로 시장과 기업의 이분법,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 체계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을 나누는 이분법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해 온 노동법, 사회보장체계를 플랫폼 노동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팔수록 손해”... ‘4세대 실손보험’ 판매 망설이는 생보사

내달 1일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신한라이프 등 실손보험 판매 안해 실손보험, 2016년 이후 5년간 적자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사의 행보가 갈리고 있다. /유투이미지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사의 행보가 갈리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이외의 생보사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두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속해서 높아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두고 다수의 생보사가 ‘팔수록 손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 ‘팔수록 손해’ 생보사 판매 고심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때문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KB생명,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라이나생명

을 시작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해 왔다. 생보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 ▲푸본현대생명 ▲AIA생명 ▲DB생명 ▲KDB생명 등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도 가입 기준을 강화해 문턱을 높이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60세에서 40세로 가입제한 연령을 낮췄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도 각각 65세에서 49세, 60세에서 50

세로 가입 제한 나이를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생보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데는 사회환원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를 통해 이익을 보겠다는 목적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환원 차원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5년 연속 적자에 팔아도 걱정

다수의 생보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실손보험의 경우 생보사의 주력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판매 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경우 생보사가 아닌 손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이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발생한 적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도 생보사들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자신들의 주력 상품이 아닌 실손보험을 예정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실은 2조3694억원으

로 전년 대비 손실 규모는 14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손실액도 1314억원을 기록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일반실손 1, 2, 3세대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치료비가 비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생보사가 한정적이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것.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비급여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손해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비와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율이 나날이 오르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업성이 점점 더 떨어진다 고 생각하면서 실손보험 판매 중지 보험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경쟁력 강화’ 지방금융지주, 디지털 전환 속도 IBK기업銀, 국내 최초 듀얼카드 출시

DGB금융, 메타버스 활용 회의 진행 BNK부산銀, 비대면으로 대출 실시

지방금융지주들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메타버스를 업무에 활용하거나 비대면 대출상품 출시,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등 디지털 강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디지털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다. DGB금융은 지난 21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6명이 참석한 그룹경영현안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DGB금융 경영진회의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데 이어 그룹 계열사 대표까지 가상공간 체험을 확대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뉴 트렌드 경험을 제공하고 가상환경 활용에 앞장서기 위해 계열사 CEO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무식, 시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



(왼쪽부터)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사옥 전경 /각사

혔다. 지방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 하나로 신청이 가능한 금융상품 라인업 강화도 이어가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최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 앱에서 신청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ONE아파트론’을 신규 출시했다.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우선적으로 서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DGB대구은행도 지난 17일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전자금)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대구은행은 핫플적금, 세븐적금 등의 비대면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대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매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상품의 판매율은 올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사용자는 116%, 판매율은 40%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1월 신설한 디지털 금융센터 자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면채널과 동일하게 제공하는 종합상담서비스가 비대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설명이다.

/이영석 기자 ysl@

NH농협금융, 인도에 코로나 구호물품 지원

산소발생기 67대 배포

NH농협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를 돕고자 산소발생기 67대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농협금융 ESG 경영 실천 차원에서 추진됐다. 뉴델리사무소를 운영 중인 NH농협은행과

합작 여신전문금융사 IFFCO-키산과 이낸스(Kisan Finance)를 운영 중인 NH농협캐피탈을 통해 진행됐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산소발생기 50대를 인도 의료기관 및 현지 교민사회에 지원했다. 인도 적십자사를 통해 산소발생기 35대를 현지 의료기관에 배포했고,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통해 뉴델리, 첸나이 및 뭄바이 현지 교민사회에

/안상미 기자 smahn1@

개인-기업카드 접목



CEO카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국내 최초로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하나로 합친 듀얼(Dual)카드 ‘CEO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 장의 카드 안에 상단에는 개인카드, 하단에는 기업카드를 배치해 고객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CEO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윤종원 행장은 “기업 CEO들에게 특화된 전용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 서비스부터 카드명, 디자인까지 개발과정을 직접 챙겼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여신전문금융사, 기존 고객도 최고금리 인하

내달 7일부터 연 20% 적용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다음달 7일부터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적용에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다음달 7일부터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인하던 금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은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갹신 및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여신업권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신협회 측은 “여전업권은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차주 약 264만명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는 카드업권 내 246만7000명 약 816억원, 캐피탈업권 내 17만5000명 약 350억원 가량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각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면서 기존 고객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던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기자

괘·사이판 노선 재개 했지만... 에어로케이 '길건너 불구경'

3년간 청주공항 거점 유지 의무에
지난 한달간 탑승률 31.4% 불과
국제선 취항지 '대만·일본' 한정
이외지역 취항시 국토부 허가 필요



에어로케이항공 항공기.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이 트래블 버블을 통한 괘, 사이판 등 국제선 재개 조짐에도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항공은 현재 청주-제주 단일 노선으로 국내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4월 항공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여전히 해당 노선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확산한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어로케이는 앞서 2019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

았던 ULCC(초저비용 항공사)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AOC(항공운항 증명)을 신청했고, 약 1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운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에어로케이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조건으로 3년간 거점 공항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해당 기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노선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대비 지역 공항 특성상 이용객이 적어 에어로케이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첫 노선 취항 이후에도 탑승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350편을 운항했다. 이 기간 탑승객은 1만9774명이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는 최대 탑승 인원이 180명으로 한 달간 평균 탑승률은 31.4%에 그쳤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트래블 버블을 통한 국제선 재개도 에어로케이의 경영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국가가 괘와 사이판 등이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 부문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 당국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에어로케이는 사실상 운항하기가 쉽지 않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국토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국제선 첫 취항지로 대만, 일본 등을 적어놨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가 이외 지역에 먼저 취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재개 조짐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외려 국토부의 혜택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3년간 거점 공항 유지 의무를 받았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당초 해당 의무를 받지 않았다고 국토부가 뒤늦게 해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3사 모두 거점 공항 유지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작성됐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거점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첫 노선으로 취항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김포-제주 국내선에 첫 항공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무더위·장마 의류케어, 걱정 마세요”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 출시 등
‘의류케어 가전’ 3총사 출격 완료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오는 상황, 마침 삼성전자의 의류케어 가전이 완성되면서 소비자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출시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슈드레서는 에어드레서 기술을 이용해 신발까지 손쉽게 케어해주는 제품으로, 버튼 한번으로 건조와 탈취, 살균 등을 해준다. 전용 액세서리 제트슈트리와 강력한 바람 에어워시, UV 냄새분해 필터 등이 힘을 합친다. 바람 온도가 40도 이하로 신발을 해치지 않는다. 저온 섬세 건조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국내 가전 최초로 제논 UVC 램프로 적용해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준다.

동시에 3컬러를 관리할 수 있다. 구성원이 많거나, 다양한 신발을 한 번에 관리받는 것도 가능하다. 컬러도 비스포크 답게 4가지를 고를 수 있어 인테리

어에 용이하다.

에어드레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강력한 바람을 내뿜는 ‘에어워시’와 스팀, UV 냄새분해 필터로 땀에 젖거나 비를 맞은 옷도 굳이 빨지 않고 새것처럼 입을 수 있다. 건조와 구김 제거 기능도 있어 관리하기도 쉽다.

건조 코스는 9개에 달한다. 아웃도어 의류와 피트니스 의류, 수영복까지도 소재 변형 우려 없이 사용하면 된다.

에어드레서는 옷뿐 아니라 공간 습도까지 관리해준다. 바로 ‘공간 제습’ 기능. 설치된 공간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줘, 장마철 눅눅한 드레스룸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9가지 다양한 패넬로 출시돼 인테리어에도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가 인기다. AI맞춤 세탁 기능으로 옷감 종류와 오염도에 따라 스스로 코스와 옵션을 제안, 이불 등 무거운 세탁물을 감지하면 ‘워터샷’으로 더 강력한 세탁력을 낼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SK이노,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SK종합화학 등 4자 협의체, MOU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등 4자 협의체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업사이클까지 아우르는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 등 4자 협의체는 24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일평균 약 4톤을 자원순환에 활용하고, 국민들의 플라스틱 분리배출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

회 정승환 회장,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 SK종합화학 이종혁 그린비즈니스그룹 담당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이 협의체는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분리배출 캠페인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친환경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육성 등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정승환 회장은 “이번 자원순환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한화디펜스, ESS 패키징 기술 국산화 시동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 협약
3년간 시험평가·선급인증 등 진행

국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가 친환경 선박용 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ESS) 패키징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제는 MWh급 선박에 탑재되는 고안전성 ESS를 100%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중대형 선박용(1MWh급)과 소형선박용(200kWh급)에 탑재되는 ESS 개발을 비롯해 시험평가와 선급인증 및 실선 탑재, 안전성 입증시험 등이 진행된다.

연구개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디펜스는 앞으로 ▲열전이 확산 방지 ▲모듈단위 화재진압 ▲해상 환경용 최적 설계 ▲경량화·소형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ESS 안전 제어 ▲고안전성 시험·승인 절차 구축 등 6대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



한화디펜스와 선박용 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 공동 연구개발을 할 컨소시엄 13개 기관 및 회사들이 지난 23일 한화디펜스 판교 R&D 센터에서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체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한화디펜스

관은 물론, 상선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KTE와 일렉트릭, 해민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조선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한국형 친환경 선박용 ESS’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해군 차세대 중형 잠수함용 리튬이온전지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해상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국가 관공선 등에 들어가는 선박용 ESS를 자체 개발해 왔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잠수함용 배터

리팩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자랑한다. 혹시 모를 해상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첨단 안전성 설계가 이뤄졌으며, 가혹한 시험 환경에서 ▲과충전·방전 ▲외부 단락 ▲열노출 ▲압력 ▲연소 ▲염수 침수 등에 대한 성능 입증시험을 세계 최초로 수행, 전 항목을 만족시켰다.

여기에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 과제 수행을 통해 해상용 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 안전성 기술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의 표준화를 선도해 국내외 친환경 선박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 시그니처, 유럽 프리미엄 가구와 작품展

논현 쇼룸서 내달 17일까지 전시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가 유럽 프리미엄 가구와 다시 한번 만났다. LG전자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논현 쇼룸에서 비엔비 이탈리아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초프리미엄 선호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과 비엔비 이탈리아의 대표 디

자이너 마리오 벨리니, 안토니오 치테리오, 가에타노 페세의 작품으로 조합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는 쇼룸 1층과 3층에 비엔비 이탈리아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1층에는 블릿츠 테이블, 1인용 소파 세리업 등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고, 3층에는 모듈형 소파인 카멜레온다 등을 갖춘 전시존도 마련했다. 특히 블릿츠 테이블은 마리오 벨리니의 신제품으로 전세계 100개 한정 판매된다. /김재용 기자

티웨이항공 소방관가족 할인 확대

티웨이항공은 전현직 소방관 가족까지 할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소방공무원과 소방동우회에 가입된 퇴직 소방관 본인에게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상시 제공해왔다.

먼저 소방관에게는 국내선 대상 비수기 25%, 주말과 성수기 10%, 국제선은 비수기 7%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을 위해 항공권 예약 시 탑승자 정보 입력 과정에서 개인 신분 할인을 ‘소방공무원’으로 선택하면 된다. /김수지 기자

세계 곳곳의 길 위에서 현대모비스의 기술은 성장한다

국내 주행시험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빌리티 기술은
한국, 미국, 스웨덴, 러시아, 중국의 길 위에서도 테스트 중이죠
나라마다 다른 기후, 노면, 교통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정교함을 더해갑니다

모빌리티 세계를 넓히다
현대모비스



골프백 4개 실어도 거뜰... 자연흡기 엔진 장점 완벽구현



혼다 '파일럿'

최고출력 284마력·토크 36.2kg.m
휠베이스 2820mm... 실용성 뛰어난
스크린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쉬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넓은 실내공간과 뛰어난 활용성을 앞세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40세대는 차량 구매시 세단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SUV가 최고 인기 차종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덩치가 크고 실내공간이 넓은 SUV보다 실용적이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춘 SUV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SUV 파일럿의 2021년형 부분변경 모델에 실용성과 정숙성, 첨단 기술을 녹였다. 지난 10일 2021년형 파일럿의 시승을 진행하며 차량의 매력력을 분석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충북 충주에 있는 행덕산까지 왕복 250km 구



혼다 2021년형 파일럿.

간에서 진행했다. 고속도로와 국도, 시골 소로를 주행했다.

혼다 파일럿은 첫 인상부터 대형 SUV의 웅장함을 갖추고 있다. 국내 판매 중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5005mm의 전장과 1995mm의 전폭 그리고 1795mm의 전고를 갖추고 있다. 거대한 체격에 어울리는 공간을 위해 2820mm의 휠베이스를 확보해 뛰어난 실용성을 자랑한다.

이처럼 큰 차체를 갖추고 있지만 주행시 운전자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확 트인 시야와 일반 승용차 두배에 가까운 넓은 사이드미러는 안정감을 줬다. 또 거대한 체격에 편리한 탑승을 위한

러닝 보드를 장착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는 대형 SUV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이 차의 좌석은 2+2+3 구조다. 1열은 물론 2열과 3열까지 성인이 탑승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했다.

또 3열 시트를 접지 않아도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3열을 접을 경우 1325L 공간 확보가 가능해 캠핑 장비는 물론 골프백 4개를 적재하는데 부담이 없다.

커다란 덩치와 달리 주행 성능은 민



혼다 2021년형 파일럿 실내.

첩하고 부드러웠다. 파일럿 V63.5리터 직접분사식 i-VTEC 엔진은 최고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2kg.m를 발휘한다. 고속구간에서 가속시 차분하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또 가솔린 SUV인 만큼 소음에 대한 걱정은 물론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에서의 진동 대응도 뛰어났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기장비부품의 구성이다. 차량의 크기에 비해 스크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 시의성이 떨어진다. 또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첨단 기능과 화려함보단 클래식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 호불호가 나뉠 것으로 보

인다.

가솔린 SUV지만 연비는 기대 이상을 기록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주행한 경과 11.8km/L를 기록. 복합 공인 연비(8.4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여유로운 실내공간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 뛰어난 연비 등을 갖추고 있는 혼다 파일럿은 '패밀리 SUV'로 안성맞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21년형 혼다 파일럿은 '엘리트'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며 컬러는 화이트, 메탈, 블랙 총 3가지이다. 가격은 이전과 동일한 595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세계최초 '클러스터리스 HUD' 개발

자율주행·전동화 디스플레이 최적화
美 등 특허등록... 미래 신기술 선점

각종 자동차 운행정보를 표시해주는 계기판(클러스터)이 통합화·단순화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변화하고 있는 운전환경의 대표적 사례다.

현대모비스가 클러스터와 HUD(헤드 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통합한 '클러스터리스 HU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며 차량 내부 공간 활용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전동화에 최적화된 신개념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HUD는 클러스터에 표시하는 각종 주행정보를 운전자 정면의 HUD와 AVNT(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커뮤니케이션)로 분산시켜 운전자들



현대모비스가 클러스터와 HUD(헤드 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합친 '클러스터리스 HU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의 주의 분산을 최소화한 차세대 운전석 기술이다.

클러스터리스 HUD는 속도와 RPM 등 상시 필수 주행정보를 운전자 눈높이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길 안내 등 HUD 본연의 주행보조 기능까지 더해 안전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디자인 차별화를 이뤄내고 주행정보표시 시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보조적인 주행 정보는 AVNT에 표시된다.

클러스터리스 HUD는 상단의 세 구

역과 하단의 한 구역 총 4개의 표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속도, RPM, ADAS 관련 정보, 길안내 정보 등을 보여준다. 하단에서는 변속 모드, 냉각수 온도, 주행 가능거리 등 차량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다. 방향 지시등, 시스템 정보 경고등도 표시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HUD는 15인치로 기존 제품 대비 정보 표시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대시보드 쪽에 탑재한 광학유리를 통해 HUD 기

능을 구현하는 컴바이너 미러의 신규 제작 공법과 광학 증착 사양을 개발해 양산성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차량에 고정하는 프레임은 운전자 쪽으로 경사지게 설계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클러스터리스 HUD를 탑재하면 내부 공간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실내공간이 넓어지는 등 내부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량 감소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클러스터리스 HUD를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콤팩트 신기술을 선점함과 동시에 국내의 완성차 브랜드에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글로벌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LGU+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정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LG유플러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태양광·풍력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산 계량기 및 인프라를 보급·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와 발전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인프라'가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량기가 외산 제품이라는 점과 발전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한적인 탓에 중소 발전사업자는 커다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유플러스를 비롯한 3사는 국내 기술로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거리 전송장치(RTU)를 개발하고, LTE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전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모델과 전력거래소 간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코어드 테크놀로지는 발전사업자의 신규 전력시장 진입에 필요한 통신 모델을 개발하고, 전력거래소는 국산 계량기의 보급 및 확산에 필요한 각종 업무와 행정을 담당한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SK텔레시스, 통신자회사 매각... 반도체 사업 집중

SKC인프라, 팬택C&I에 789억 매각

SKC의 자회사 SK텔레시스가 통신 사업을 매각한다.

SKC는 24일 자회사 SK텔레시스가 팬택C&I에 통신장비 사업부문과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SKC인프라서비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했다.

총 매각 금액은 789억 원이며 오는 8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KC는 2011년 이후 단말기 사업 진출로 한때 어려움에 처했던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고, 2016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냈다. SK 텔

레시스는 이번 매각을 통신사업을 매각해 지속적인 BM(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SK텔레시스는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SKC는 2017년 이후 과감한 사업구조 재편과 자산 효율화를 통해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등 미래 신규 유망

사업에 진출하는 BM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SKC는 지난해 2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사 SK넥셀리스를 인수해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장착했다. SK넥셀리스는 올해 말 레이시아와 유럽 등 대규모 해외 생산기지 확장에 나서 2025년까지 세계 최대인 20만 톤 이상의 동박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증권사 IPO 주관도 '부익부 빈익빈'... 대형사 '독식' 뚜렷

미래에셋, 올해만 12건 IPO 참여 229억 수수료, 점유율 22.67% 삼성 16.08%, 한국투자 11.27% 중소형사, 신규 스펙 상장 노력

〈올해 상위 7곳 증권사가 벌어들인 기업공개(IPO) 딜 수수료〉 (23일 기준)

순위	회사명	수수료(원)	점유율(%)	건수	이자율(BP)
1	미래에셋증권	229억	22.67	12	165.50
2	삼성증권	162억	16.08	11	283.03
3	한국투자증권	113억	11.27	10	125.38
4	대신증권	82억	8.16	7	307.92
5	하나금융투자	78억	7.78	7	339.16
6	NH투자증권	78억	7.16	4	77.67
7	JP모건	46억	4.62	1	65.00

미래에셋증권

대형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IPO 시장 호황이 이어지며 기존 막강했던 시장 지배력이 폭넓은 네트워크와 경험,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더 공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에스케이아이아이티(SKIET)와 크래프톤을 비롯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것이 대형사 독식 구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중·소형사는 이미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대형사와의 경쟁을 피해 스펙(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미래에셋 독주...KB 반격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들어 12건의 IPO 딜에 참여하며 229억원의 인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시장 점유율이 22.67%에 달한다. 삼성증권이 162억원(11건·

16.08%)을 벌여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113억원(10건·11.27%), 대신증권 82억원(7건·8.16%) 순으로 수수료 규모가 컸다.

상반기는 미래에셋증권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빅3'로 불리며 IPO 완주를 다뤘던 NH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인수 수수료가 78억원에 그치며 한 발짝 뒤쳐진 모양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에도 상장 후 시가총액이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의 주관을 차지했다.

이 외에 상반기엔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한화종합화학 등 대어급의 대표주관을 따낸 KB증권의 뒤늦은 반격이 확실시된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수 백 억원대의 인수 수수료를 챙기며 시장 점유율 20%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IPO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수 업무의 수익성 규모도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모주가 인기를 끌었던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벌었던 인수 수수료는 248억원 수준이었으나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벌써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통상 대형 IPO에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증권사는 총 공모금액의 0.8% 정도를 인수대가로 받는다. 공모 실적과 기여도 등에 따라 0.2~0.3% 가량의 추가 성과보수도 챙길 수 있다.

◆중·소형사는 스펙으로

상장에 나선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 대형사에 몰리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적정 공모가 논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공모가 밸류에이션이 조금만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발을 뺄 수밖에 없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사가 진행하던 IPO를 대형사에 뺏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업의 상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대형사를 선호하는 것. 대형사는 그동안 쌓아온 트랙레코드(실적) 등이 우호적인 환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형사들은 대형 딜에 입찰제안요청서(REP)조차 넣지 못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자기자본 순위 10위권대 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딜 수수료 몇 억원 벌자고 추후 주가 하락

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기 힘들다"며 "반면 대형사들은 대형 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까지도 고려하는 만큼 보다 기업가치 측정에 공격적으로 나서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른 증권사 IPO 하우스 담당자도 "주관 업무를 맡을 경우 신규 계좌 개설로 인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사업, 더 나아가 기관 네트워킹을 활용한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IB)과 각종 글로벌 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가 장악한 직상장 주관 대신 신규 스펙 상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 하려는 기업은 이미 정해 놓은 공모규모가 있어서 증권사 규모나 이름 값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모 규모에 따라 충분히 피합병회사의 구미를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선 교보증권이 원바이오젠, 유안타증권이 제이시메디칼을 합병 상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고덕·위례·동탄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신도시 아파트 공급 부족에 관심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유보라 더크레스트' 오피스텔 투시도.

고덕·위례·동탄 등 신도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돼 주목된다. 이 지역은 '핫플레이스'로 꼽히지만 올해 아파트 공급이 적은 편이다. 아파트 대체 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100%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이 부족한 실수요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이어진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일원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평균 232.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64.60대 1)보다 무려 3.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도건설이 오는 7월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유보라 더크레스트'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단지는 59~84㎡, 1116실로 구성되며 상업시설 '고덕 파피에르'도 함께 들어선다. 고덕국제신도시 중심부인 비즈니스콤플렉스타운에 들어서며 도보 10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 279만㎡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입주한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과 SRT·KT

X(예정)·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체역과도 가깝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서는 W건설이 '송파위례 아피체' 오피스텔을 이달 분양한다. 44·57·59㎡ 3개 타입 총 117실로 공급된다. 거원초, 거원중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 개교가 예정된 거암초와 거암중, 덕수고, 하남위례도서관 등 교육환경과 장지근린공원, 장지천 수변공원, 남한산성 등이 인접해 있다.

같은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39블록에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를 분양한다. 64~84㎡ 166실로 구성된다. 동탄테크노밸리 중심 입지에 위치하며, 인근 삼성나노시티가 있어 배후수요 확보에 용이하다. 반경 약 1.5km 거리에 SRT 동탄역이 있어 SRT 수서역까지 약 17분에 이동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2층 자양 회의실에서 열린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 실천 서약식'에서 정일문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바른생각·바른행동 실천 서약

사모펀드 전액보상 후속 조치 정일문 사장 등 서약서 서명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 2층 자양 연수실에서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주 판매책임 사모펀드 전액 보상 발표에 따라 투자자상품관리부를 신설한 후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서약식은 고객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임직원의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일문 사장과 임직원 대표 4명이 참석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경영 방침인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오프라인 행

사 외에도 한국투자증권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서약에 동참했다.

실천 서약에는 ▲고객 신뢰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 ▲고객 신뢰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일문 사장은 "최근 발표한 판매책임 사모펀드 선제적 대응이 내부적으로는 고객 신뢰 방안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눈높이에서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해 오늘의 실천 서약이 내일로 향해 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미래에셋증권 나스닥 클로징 벨 기념행사 참여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나스닥거래소에서 나스닥 폐장을 알리는 '클로징 벨'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클로징 벨 행사는 원격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가진 투자은행으로서 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투자은행(IB), 연금, 트레이딩, 디지털금융 등 종합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내 최대 자기자본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라며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속해 있는 미래에셋그룹은 증권, 자산운용, 보험, 벤처캐피탈 등 금융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끝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 최상위 투자은행을 뛰어넘어 글로벌 최고수준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 나스닥과 고객,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며 소개를 마무리했다.

로렌 딜라드 나스닥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과의 협업에 대해 "나스닥과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과감한 비전, 혁신 전략, 투자자들의 관심을 염두에 둔 오늘날 혁신금융기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군인공제회

건설투자부문이사 공모

군인공제회가 건설투자부문이사(CIO)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고 24일 밝혔다.

건설투자부문이사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건설사업 분야 실무 및 관리경력 15년 이상과 임원경력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다. 건설사업 신규 투자 발굴과 회원주택사업 용지 확보 및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개인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하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 서류는 우편 제출(마감당일 15시 도착분에 한함) 또는 군인공제회 인사팀에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115@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보험사, 미래 먹거리 발굴 '분주'

교보생명·신한생명·KB손보 등 업계 첫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융합 촉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강화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영업손실을 메꾸고, 장기적인 보험사의 수익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고,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한 번에 파악해 더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15일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주요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한생명

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신한생명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를 접목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에 의료 분야 실증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한생명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의료 분야에 참여해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추천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보

험 가입 절차 간소화도 나선다. 개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다. 계약 심사 과정 중 고객이 겪는 불편함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인 '하우핏(HowFIT)'과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헬스케어 콘텐츠인 '마이바디(My Body)' 등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신한라이프로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영역 개발을 위해 신한생명은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15일 신한라이프 기자간담회에서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신한라이



유투이미지

프는 디지털과 헬스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앞으로 1,2년 이내에 디지털과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 일류가 될 것"이라며 "최근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을 런칭했다. 이를 보험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KB손보는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도 검토하며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지난해 9월 보험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지만 최근 보험법 개정에 따라 나뉘

사 차원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준비해오던 것을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데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보사 15곳과 손보사 11곳의 총 보험영업손실은 6조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보험영업손익은 ▲2018년 -5조3498억원 ▲2019년 -12조696억원으로 적자 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보험영업에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판매를 뛰어넘어 장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를 연계한 서비스를 통해 보험업계의 새로운 주력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병자·고령자 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이 기대된다"며 "초반에 얼마나 데이터를 구축하는지 등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성과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내년 3대 핵심산업 등 R&D에 23.5조 투자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확정
바이오·전기차·반도체 등 2.4조
소부장 분야 생태계 강화 2.2조 등

정부는 내년에 주요 연구·개발(R&D)에 올해 22조 5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24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2020년 18%, 2021년 13%에 비해 낮았는데,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나 국회위 단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중점 증가한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 44%로 가장 높고, 시스템반도체, 양자기술, 6G 등 기술패권 대응 전략기술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물품·기기 등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3대 핵심산업인 바이오헬스·미래차·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전년 대비 9.1% 증가한 2조 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 기술 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에도 전년 대비 44.8% 증가한 1조 5400억원을 투자한다.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 조 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또 메타버스 기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2조 2400억원을 지원한다. 185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65개 미래 선도품목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 5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탄소중립, 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또 양자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조 8900억원을 투자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CCUS 기술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94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도 올해 2조 46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정부, 신규 규제자유 특구 지정 심의

정밀의료	강원	그린수소	충북
탄소저감 건설소재	충남	스마트 그린물류	경북

1차지정 특구 7곳 안착 지원
규제법령 체계적으로 정비

정부가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신규 특구 지정에 대한 심의와 오는 8월 끝나는 1차 특구 실증 22개 사업의 임시가 전환·실증특례 연장 방안을 오는 7월 1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2개 지자체가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사업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심의위원회에선 그동안 보완된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면서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특구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 당시 1차로 지정된 특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곳이 대상이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이 올해 8월 종료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업들에 대해선 특구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류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bada@



FIRST BRAND AWARD 2021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 리솜리조트

일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머물고 싶은 곳 포레스트 리솜 특별회원 분양

한 곳 한 곳 제대로 테마가 다른 리조트

제천, 안면도, 덕산, 제주에 위치한 리솜리조트는 각기 다른 천혜의 자연환경과 콘셉트로 다양한 휴양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 곳 한 곳 특별한 테마를 가진 식음, 문화, 휴양 콘텐츠로 가는 곳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회원의 만족도가 높다.

호반계열 골프혜택까지 프리미엄이 다른 리조트

4곳의 리조트와 함께 H1클럽(구, 덕평CC), 서서울CC, 하와이 와이켈레CC 등 3곳의 호반그룹 골프장까지 회원 혜택이 제공되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국내 마지막 천혜의 해양 리조트로 선보일 화진포 리조트 개발, 제주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혜택까지 더 기대된다.

재계 37위 호반그룹계열사 안정성 1위 리조트

리솜리조트를 운영 중인 호반호텔&리조트는 호반 그룹의 계열사로 업계 유일하게 기업 신용평가 A등급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산 안정성 1위로 지속적인 투자와 회원권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2년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 고객만족도 1위 리조트

리솜리조트는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레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문가의 심사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 직접 투표로 선정되는 상으로 보다 객관적인 고객만족 평가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리솜리조트 특별회원 혜택

- 1. 리솜리조트 객실료 30% 할인 (2년)
- 2. 스파/워터파크 이용 무료 (1년)
- 3. 제주 퍼시픽 리솜 회원 최대 40% 할인

문화감성형 웰니스 리조트
레스트리 리솜 2021년 7월 오픈

포레스트 리솜 동쪽에 자리한 레스트리 리솜은 풍요로운 자연을 벗삼아 평온한 휴식을 선사하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감각적인 리조트 라이프를 선보입니다.



프라이빗 에코리조트 포레스트 리솜[제천]



로맨틱 섀넬리조트 아일랜드리솜[안면도]



해양문화 테마파크 퍼시픽 리솜[제주]



사계절 온천리조트 스펀라스 리솜[덕산]

HOBAN
 HOTEL & RESORT

24시간 상담 가능
 회원권 분양문의
02-541-0113

“직업인으로 정당한 대우” vs “국민에 권장할 행위 아냐”

〈타투업계〉

〈의료업계〉

〈中〉 타투 합법화 논란

1992년 대법원 판결과 연이은 현재 판결이 비의료인의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수십 년 간 타투는 음지에서 이뤄졌다.

현재도 몇몇 의사들이 타투 기술을 하지만 타투리스트는 자신을 의료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외모를 선사하는 예술인으로 불리길 원한다. 타투인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은 타투법제화의 과정을 ‘합법화’가 아닌 ‘일반 직업화’로 부른다.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 행위이므로 애초부터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

의료계는 완고하다.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타투는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피부의 1차 방어 기능을 파괴하며 비의료인의 시술로 감염, 통증, 면역 관련 질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27조와 지금까지 쌓여있는 판례는 그들의 힘이다.

시대는 바뀌고 있다. 2030세대에서 타투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발목, 손목 등에 하는 레터링이나 조그만 타투 정도는 젊은 세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외서도 韓타투리스트 서비스 인정 국내선 불안한 입지에 일상생활 위태 불법의료행위 신고 빌미 협박도 빈번

2017년 7월 26일 두잇서베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몸을 광범위하게 덮은 문신엔 부정적인 의견(72.1%)을 갖고 있었지만, 몸 일부의 새겨진 문신(71.4%), 반영구 문신(86.4%)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문신합법화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 65%와 반대 15.7%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정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타투 시술자는 8784명,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1만 8598명이다.

또한 표본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5.3%는 타투, 30.7%는 반영구 화장을 경험했다. 59.2%는 둘 모두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문신의 비율(21.2%)이 더 높았고 여성은 반영구 화장의 비율(9.8%)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타투와 반영구 화장을 각각 25%, 35% 넘게 경험했

〈문신·반영구화장 경험 조사〉

구분	사례수	문신	반영구화장	경험없음	
성별	남성	492	21.2	16.3	68
	여성	508	9.3	45.1	50.4
연령	10대	99	7.4	14.9	81.8
	20대	228	26.9	37.9	48.4
	30대	287	25.5	37.6	47.2
	40대	219	14.9	35.3	55.1
	50대 이상	167	8.8	26.4	65.2
결혼 여부	기혼	479	13.4	33	57.6
	미혼	521	18.1	27.1	61.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95	10.6	31.3	59.8
	2년 대졸이하	140	18.5	33.4	54.3
	4년 대졸이하	561	15.6	29.9	59.8
	대학원 이상	104	18.9	30.2	60.6

단위 : %,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타투를 경험한 장소는 대부분 문신 전문숍(66.3%)였고 병·의원에서 타투를 경험한 사람은 2.7%에 그쳤다.

의협의 논리대로 하자면 늘어나는 다양한 타투 수요를 충족하는 관련 의료인의 수가 늘어나야 하나, 타투리스트가 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따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이런 와중 한국의 타투리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K-타투'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도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타투리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지난 12일 팟캐스트 '편파TV'에 나와 "5년 전부터는 '전세계 타투의 중심지는 서울이다'라고 해외 웹진들이 이야기 할 정도로 한국 타투 산업은 그 위상이 대단하다"며 "전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타투리스트 100명 세워서 한국인을 빼면 50명은 나올거다.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상징적인 타투 스튜디오가 뉴욕의 뱅뱅 스튜디오인데, 코로나19 이전 올해부터 작업하기로 예약하기로 돼있던 작업자 40명 중 14명이 한국 아티스트고 그중에서 가장 비싼 작업료를 받는 아티스트도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지회장은 브래드 피트, 크리스 마틴(골드플레이 보컬), 스티브 연, 한예슬 등 스타와 작업한 일류 타투리스트다.

김 지회장은 자신의 동료들이 타투리스트로 불법적 지위에서 피해를 보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연대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4월에만 타투리스트 2명이 불

법 의료행위로 신고를 당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타투리스트들은 신고가 제일 두렵다. 지난 20일 류호정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한 타투리스트 바늘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손님 한 분이 일부러 저한테 타투를 받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고 다 처리를 했는데도 이제 저희 작업실 주소를 경찰한테 신고를 계속 하시면서 '너가 이제 나한테 500만원을 보내주면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지위가 불안정하니 타투리스트는 신용 카드 발급이나 전세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에도 취약하다. 여성 타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빌미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 “스티커로 하면 돼”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은 8년 넘도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신을 국가 자격을 줘서 국민들에게 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의료행위든 아니든 문신 행위를 국가 자격을 줘서 상업적으로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의협의 입장에 대해 "문신을 젊었을 적에 하고 다시 지우러 오시는 분이 너무 많다. 옷 벗는 것처럼 벗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비용이 들고 고생을 하고 흉터가 남는다. 그 와중에 화학 물질을 오랫동안(몸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국가 자격증을 주면 반드시 상업화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타투업법안이 통과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에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줄 우려 때문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황 위원은 "해당 직종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다. 의사 대신에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기계 관리를 위해 필요하신 의료기사 분들이기 때문이다. 문신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권장할 행위는 아니다. 문신하고 물리치료와 방사선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터를 덮는 문신) 그런 경

우에 한해서 (문신을) 하시는 의사 분들이 계신다.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흉터 조직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라서 문신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심각한 탈모, 화상,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는 물음에 오히려 류호정 의원이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그분도 평생 남는 문신은 싫으니까 스티커처럼 띠었다 붙여다 하는 걸 (등에) 붙였다"며 "그분 하시는 방식대로 살 속에도 바늘을 넣는 방식 말고 스티커 타입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자격증이 필요없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불법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스티커형으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

법안을 발의한 류호정 의원실 측에도 문의했다.

류호정 의원실 측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타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 후회할 지라도 나중에 지우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안에 있는 부분이다. 국가나 사회가 그것을 예단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성화 영역에 뒤야한다'라는 논리는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온당치않아 보인다"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당하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타투리스트들이 정상적인 제도나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의협, 문신행위 국가자격 불가 고수 “옷 벗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 아니야 자격 주어질 경우 상업화로 이어져”

미성년자에게도 타투할 권리를 보장한 부분에 대해 의협실 측은 "저희 당론이기도 하고 최근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개헌에 대한 내용과도 닿아있다. 미성년자가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나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로 보고 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타투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고 그 의료 행위였다면 지금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계에 많이 진출하셨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산업디자인이나 예술대학, 미대를 나오신 분들이 많고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의사 본인에게 모순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미래를 묻자 "정의당이라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에 상정이 될 건데 해당 상임위에 계신 정의당 의원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안이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헌법에 계신 분들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의원과 의원실 측에서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배우 한예슬이 유튜브를 통해 타투 시술 과정을 공개했다.

/한예슬 is 유튜브 갈무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임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삼성, '단체급식 일감 몰아줘' 과징금 2350억... 최저성 고발

(전 미래전략실장)

삼성그룹이 사내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적발돼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개입한 가운데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해 준 삼성전자(과징금 1012억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액수는 부당지원행위에 부과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

사(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 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 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 4월), 삼성SDI(2013년 6월), 삼성전기(2013년 7월)와 해당 계약 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마저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웰스토리는 약 9년간의 이런 몰아주기를 통해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래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러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하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웰스토리는 이런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의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 또 합병 전 삼성회계법인 이 평가한 제일모직 즉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000억원)가 피합병회사인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5년~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받았다.

공정위,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웰스토리에 물량 100% 몰아줘 '높은 이익' 보장 계약구조 설정

웰스토리, 9년간 직접이익 25% 단체급식 영업이익률 15.5% 달성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율 25% 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 이익률(매출액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직접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급식업체의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 기준으로 사용된다.)은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같은해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저성 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이듬해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세종=한용수 기자

외투 184개 품목 타겟팅·집중유치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주재 K-뉴딜·첨단소부장·백신 등 유망 유망성 높은 '그룹A' 집중

내년부터 그룹B·그룹C도 유망 인력양성·애로해소 등 체계 개선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투 유치 필요성이 큰 핵심 유망품목을 타겟팅해 집중 유망에 나서는 등 외투의 질 관리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외투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투전략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와 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으로도 우리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외투전략에 따르면, 우선 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망품목을 정해 유망 필요성을 기준으로 1·2·3순위로 분류한다. 이어 해당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망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해 유망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유망 필요성과 유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그룹A'에 해당하는 100대 기업 유망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망 노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외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투 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 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기준 외국인투자유치는 6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기록중이며 수출과 고용 등 양적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10.8%, 고용은 5.6%, 수출은 18.6%나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귀농·귀촌인구 49만명... 전년대비 7.4% ↑

농식품부, 2020년 통계결과 가구수 35.8만 가구 '역대 최대' 2030 청년층 농촌유입 상승세

지난해 농촌 유입 인구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귀농·귀촌 가구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이하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눈에 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가구수는 35만 7694가구로 관련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총이동인구는 773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63만 1000명 증가했다. KREI의 농업농촌 국민식조사에선 도

(연령별 귀농·귀촌 가구수)

(단위: 명, %, p, 세)

구분	합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평균 연령
2019년	11,422 (100.0)	1,209 (10.6)	1,747 (15.3)	4,251 (37.2)	3,460 (30.3)	755 (6.6)	55.0
2020년	12,489 (100.0)	1,362 (10.9)	1,784 (14.3)	4,365 (35.0)	4,060 (32.5)	918 (7.4)	55.3
증감 (비중 증감)	1,067 (-)	153 (0.3)	37 (-1.0)	114 (-2.2)	600 (2.2)	163 (0.8)	0.3

/자료=농식품부

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1.4%로 전년(34.6%) 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는 7만 1614가구로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여전히 50·60대 가구가 전체의 67.5%를 차지해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또 1인 귀농·귀촌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선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이나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54.5%)·경북(16.9%)이 전체의 71.4%를, 화순은 광주광역시(78.5%), 임실은 전북(59.0%)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죽전휴게소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환경부, 연내 15곳에 30기 설치 930곳에 충전시설 추가설치 계획

죽전휴게소에 20분이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고속 충전기 2기가 25일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5곳에 초고속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930곳에 충전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350kW 초고속 충전기 2기는 공공부에서 처음 설치돼 운영된다.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는 400km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를 약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충전에 1시간 가량 걸리는 100kW급 급속 충전기보다 더 빠르다.

환경부는 또 올해 3월 개발한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급속 충전기가 필요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졸음쉼터 등 1~2등급 지점에 90%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은 통행량, 전기차 등록 대수, 월평균 충전



죽전휴게소에 설치된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환경부

횟수, 인근 충전소 거리, 급속 충전기 보급수 등을 분석해 충전시설 설치 지점을 5등급(우수~열악)으로 분류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대학 2학기 대면활동 초읽기... 실기 수업부터 단계적 확대

교육부, 대학 대면 활동 확대 방안 대면 수업 폭, 대학 재량으로 결정 유학생, 유휴 호텔 등서 자가격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오는 2학기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이어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인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 학내 대면 활동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부터는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단, 대면 수업 폭은 개별 대학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1학년도 2학

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다. 방역이

쉬운 소규모 수업 역시 대면으로 운영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인 10월경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하에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면·비대면 동시 수업,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등 대학이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을 지속해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유학생, 장애 학생 및 코로나19 확진 이후 학내 복귀 학생 등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업 외 활동은 1차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소규모 대면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대규모 대면행사 및 축제는 금지한다. 이후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회, 동아리를 포함한 학생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수업 외 학내 활동은 시기별·유형별로 세분화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대면수업 확대 방향은 초·중·고교와 다른 대학의 상황과 감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며 "대학별 대면수업의 폭은 방역 지침 준수 전제하에 대학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역 강화국가 외국인 유학생은 유휴 호텔,

기숙사 등 급급적 학교 확보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관찰(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개강에 맞춰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인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 대학이 함께 집중 방역관리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2학기 대면수업 확대가 대학의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잘 챙기겠다"며 "방역과 교육 모두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질병청,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교협·전문대교협 “등록금 반환 어렵다” ‘지하철 개인창고서비스’ 12개 역으로 확대

교육부 “반환, 대학-학생 협의사항” 학생 대상 추가 지원 올해 계획 없어



(왼쪽부터)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성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프리핑에서 대학생 대상 등록금 반환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지난해 납부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의 협의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관련 "학생 입장은 이해하지만, 대학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장 등으로 행·재정적 추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받들기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도 "전국 전

문대학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등록금은 수업 이외에도 학생의 모든 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갈 문제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 차원 추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나해부터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원의 학생 대상 추가 지원도 올해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 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지구 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개인창고 장기대여 서비스인 '또타 스토리지'를 12개역(13개소)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타 스토리지는 캠핑용품, 계절의 류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전, 가구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보관하고 찾아갈 수 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다.

새롭게 추가되는 또타 스토리지는 9개역 10개소다. 장소는 ▲5호선 신정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광흥창역·창신역 ▲7호선 중계역·태릉입구역(2개소)·상봉역·반포역·신풍역이다. 기존 3개소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주거비 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창고는 0.3평형과 0.5평형 총 2가지 유형이 있다. 0.3평형(월 7만9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가로 48cm×세로 38cm×높이 34cm) 10개 가량을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취미용품·계절의류 수집품 보관 등에 적합하다. 0.5평형(월 13만1000원)은 5호박스 20~25개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가전·가구나 원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 설치된 또타 스토리지. /서울교통공사

룸 이삿짐 등을 두면 편리하다.

공사 관계자는 "창고는 향은·향습 시설이 완비돼 최적의 상태로 짐을 보관할 수 있으며, 내부를 실시간 녹화하는 CCTV도 설치돼 안전하다"면서 "보관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또타러기지(유인보관소), 또타스토리지 등 생활물류센터 5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역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심정지 학생 구한 셔틀버스기사에 의인상

호서대, 박진수 기사에 수여



박진수 씨와 김대현 호서대 총장(오른쪽)이 감사패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심정지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대학 셔틀버스 기사가 대학 측으로부터 '의인상'을 받았다.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박진수 기사에게 '호서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진수 씨는 지난 8일 셔틀버스 운행 중 천안역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해 119구급대가 도착 전까지 골든타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의식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통상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현 총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로 귀한

생명을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진수 씨는 "매년 2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이번 사례처럼 위험에 빠진 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며 "호서 의인상을 주신 김대현 총장님 외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전의찬 세종대 교수 기후변화위원장 선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전의찬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24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국무총리와 중앙 18개 부처 장관과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 경제산업, 에너지혁신 등 모두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전 교수는 기후변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종합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7인 발족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시는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서울시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륜사무소 민산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흥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환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현정 기자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JO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1 서울시내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2 영상 속 A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A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속!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도입 등 지속가능 미래교육 열 것”

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3주년 학습격차 해소 등 5대 핵심과제 2023년까지 창의융합교육센터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24일 오전 전남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교육청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24일 오전 전남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 전남교육의 탄탄한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전남교육은 이제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혁신으로 시작된 담대한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남교육이 어떠한 위기에도 중단 없이 빛날 수 있도록 ▲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강화 ▲ 자녀통합 돌봄체제 구축과 학생 건강회복 ▲ 디지털사회 창의 융합인재 육성 ▲ 전남형 미래학교 육

성 △ 분권과 자치에 대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배치, 인공지능 온라인 튜터 확대 운영, 전남교실ON닷컴2.0 고도화 및 전남형 공공학습 플랫폼 조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자녀 통합 돌봄체제 구축과 학생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돌봄터 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확대하고,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셋째,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물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시·군에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특성화된 작은 학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전남의 실정에 맞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전남의 미래가 살아 숨 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섯째, 자치와 협치가 꽃피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인사와 예산 운용의 자율권을 갖고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될 혁신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모든 학생들은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전남교

육의 담대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3년을 회고했다.

장 교육감은 그 성과로 ▲ 선제적인 교육복지 확대 ▲ 교실수업 혁신과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 미래교육 기반 조성 ▲ 민·관·학 거버넌스 토대 구축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변화와 혁신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며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주시는 교육가족과 도민 덕분에 전남교육이 침체를 딛고 미래를 열며, 알차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취임 3주년(7월 1일)을 1주일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전남교육 TV)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홈앤쇼핑, 영주시와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영주 사과 홈쇼핑 판매호조 계기 다양한 영주 특산물 판매 예정



홈앤쇼핑 김옥찬 대표(왼쪽)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경북 영주시 장욱현 시장과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을 맺었다.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경북 영주시와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에서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장욱현 영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홈앤쇼핑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영주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의는 앞서 홈앤쇼핑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영주 사과의 판매 호조를 계기로 성사됐다. 홈앤쇼핑은

쇼핑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주 한우, 풍기 인삼 등 영주의 우수한 특산물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는 “코로나19로 매출 부진 등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홈앤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특집전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상생마케팅을 진행하며 농업인 지원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편성해 피해 중소기업 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서 두번째)이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광주주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후사노프 노짐 바흐티오로비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우즈벡 장관 접견

노동시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노집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코로나19 시대 광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환경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접견은 23일 열린 광산구 소재 우즈베키스탄인 쉼터 개소에 참석하기 위해 노집 후사노프 장관이 광주를 찾으면서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노집 후사노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파이지에브 하이다르 주한 우즈베키스탄 영사, 안리나 주한 우즈베키스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외 노동자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간 경제교류, 인적 왕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집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은 “어제 쉼터 개소식 후 자국 근로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한결같이 광주가 살기 좋은 지역이고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근로자쉼터 개소에도 시에서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 유형문화재 지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62호

청송군은 최근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62호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전문가 및 도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차 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 시,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재 지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차 동산분과 회의(6. 11.)에서 지정 심의 후 고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됐다.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는 인도 영취산에서 있었던 석가모니불도의 설법모임을 도해한 불화로, 화면 중앙 석가여래의 좌우에는 문수와 보현보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을 포함

한 8위의 보살로 구성되어있으며, 화기(畫記)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나 수화승 밀기(密機) 등을 통해 불화의 조성연대(1740년 또는 1750년)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석가모니불도의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근접형 구도로써, 18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청송군은 이번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 지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35건을 합해 모두 5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우수한 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광주광역시

구직청년에 교통수당 지원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다.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지난 2017년 시행 이래 5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19~34세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이다. 광주시는 거주지 요건, 가구소득 등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영양군, 실명예방재단과 안과 무료검진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영양군은 6월 24일 영양군보건소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과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안과검진은 안과전문 진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실명예방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안과전

문의 2명이 포함된 검진 전담팀이 문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진 후 이상소견자는 투약, 상담 및 돋보기를 배부하고, 안과적 수술(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이 필요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수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CJ제일제당,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추진 ‘친환경 미래’ 활짝

‘화이트바이오’ 사업 다각화

HDC현대EP와 양해각서 체결
컴파운딩 경쟁력 확보·강화 주력
차별화 친환경 소재 안정적 공급

CJ제일제당이 국내 고분자 컴파운딩 1위 기업 HDC현대EP와 협력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컴파운딩이란 두 개 이상의 산업 소재를 최적의 배합으로 혼합하는 생산방식. 또는 혼합공정 전반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CJ제일제당은 서울시 강남구 현대아 이파크타워에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이사과 정종규 HDC현대EP 대표이사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이사(오른쪽)와 정종규 HDC현대EP 대표이사가 ‘바이오 컴파운딩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J제일제당

‘바이오 컴파운딩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올해 안에 본 계약 체결과 합작법인(JV)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먼저 생분해 플라스틱 소

재인 PHA와 셀룰로오스 등을 활용해 컴파운딩 솔루션 개발 및 바이오플라스틱 대량생산을 추진한다. 기존 석유화학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대체하거나, 생분해 소재를 혼합해 식품 포장재와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보유한 미생물 발효·정제 기술과 HDC현대EP의 친환경 소재 컴파운딩역량이 결합되면서 사업적 시너지가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EP는 PHA를 비롯한 차별화된 친환경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컴파운딩 경쟁력 확보·강화에 주력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미생물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약 3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글로벌 그린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PHA 로 화이트바이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공장에 연간 5000톤 규모의 PHA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HDC현대EP는 HDC의 계열사로, 2000년 현대산업개발 유휴사업부에서 독립해 설립됐으며 기능성 폴리머 산업의 혁신을 통해 자동차, 전자, 건설,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성장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셀룰로오스 기반 소재를 생산을 시작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마카롱에 주시후레쉬 등 껌 3총사 입혀

세븐일레븐 ‘쥬쉬아마카롱’ 선보

편의점 디저트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인기다.

24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1월1일~6월23일)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마카롱의 인기가 유독 뜨겁다. 같은 기간 마카롱 상품군 매출은 45.7% 늘었다.

특히 콜라보 마카롱 상품이 디저트 카테고리에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된 ‘찰옥수수마카롱(3800원)’은 찰옥수수 아이스크림의 맛을 그대로 녹여냈다. 여기에 실제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있어 옥수수를 씹는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출시와 함께 큰 인기를 끌며 판매 개시 일주일 만에 디저트 판매 3위에 올랐다.

이처럼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세븐일레븐은 ‘쥬쉬아마카롱(3800원)’을 새롭게 선보이고 구색 강화에 나섰다.

‘쥬쉬아마카롱’은 롯데제과 장수 껌인 주시후레쉬, 후레쉬민트, 스피어민트 맛을 각 1입씩 총 3입으로 구성한 상품이다. 껌의 향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리지널 껌의 맛을 마카롱으로 구현했다. 밝은 색깔에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품이다. /신원선 기자

CU, 원두 찌꺼기로 만든 ‘커피박 데크’ 도입

전국 1만5000여개 점포 거점
유해물질·환경호르몬 ‘안전’

CU는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커피박 데크(Deck)를 점포에 도입한다.

커피박은 흔히 커피 찌꺼기라고 부르는 커피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부산물을 이르는 말이다. 원두의 0.2%가 커피로 추출되고 나면 나머지 99.8%가 커피박이 된다.

커피 음용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커피박은 약 15만톤(2019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커피박을 별도로 분류하는 기준이 없어 일반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데, 커피박을 소각하면 톤당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CU는 전국 1만5000여 개 점포를 거점으로 자원이 재활용되는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커피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커피박 데크를 점포에서 시범 운영한다. 가맹본부 차원



커피박 데크를 설치한 CU 점포 /BGF리테일

에서 커피박 데크를 도입하는 것은 CU가 처음이다.

커피박 데크는 커피박 함유율이 20% 이상인 합성 목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부목 데크 대비 쪼개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적고 기온, 강수량 등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다. 커피원두의 특성인 방향 및 탈취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점포 상황에 따라 데크를 철거해야 할 경우에도 조립된 데크를 그대로 해체하기만 하면 100% 재자원화가 가능하다.

CU가 점포에 도입하는 커피박 데크

는 각종 유해물질 및 환경호르몬 검출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일반 방부목 데크 대비 단가가 약 23% 가량 높다.

CU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커피박 데크 상용화를 위한 내부적 자원 순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CU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수거해 제조공장에 전달하면 협력사가 이를 데크로 가공하여 다시 CU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CU에서 한 해 동안 판매되는 즉석원두커피(갯커피)는 약 1만4000만 잔으로 잔당 평균 12g의 원두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700톤의 커피박이 발생한다. 점포에서 수거된 모든 커피박이 업사이클링된다고 가정하면 약 4000개 점포(점당 29m2 설치기준)에 갯커피 원두로 만든 커피박 데크를 시공할 수 있다.

BGF리테일은 일부 신규 점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친 후 가맹점과 고객 반응에 따라 커피박 데크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SG랜더스, 푸빌라 유니폼 입고 뒀다

신세계백 캐릭터 ‘푸빌라와 친구들’
내달 2~3일 특별 유니폼 입고 경기



신세계 데이 유니폼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캐릭터 ‘푸빌라와 친구들’이 SSG랜더스와 만난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2~3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홈경기 기간 동안 ‘신세계 데이’를 열고 자체 캐릭터가 새겨진 특별 유니폼을 선보인다.

‘푸빌라와 친구들’은 하얀 몸을 닮은 솜뭉치와 너구리, 여우 등을 모티브로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017년에 만든 캐릭터다. 이번 2일과 3일 경기에서 SSG랜더스 선수단이 착용할 신세계백화점의 특별 유니폼은 신세계를 상징하는 꽃잎의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배색 라인으로 신세계백화점 부티 편집숍 ‘시코르’ 팔 패치를 추가했다. 또 구단 로고 아래쪽에는 푸빌라가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이 추가돼 재미를 더했으며 유니폼 뒷면에는 다람쥐를 모티브로 한 푸빌라의 친구 ‘포코’가 응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신세계가 제작한 특별 유니폼은 경기 당일인 2일부터 4일까지만 SSG랜더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SSG닷컴에서 사

전 예약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다.

24일부터는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캐릭터 푸빌라와 함께 시구를 할 시구자 초청 행사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신세계백화점 공식 SNS 계정의 이벤트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은 7월 3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경기 전 시구를 하게 된다.

신세계 데이 당일인 7월 2일과 3일엔 최정, 최주환 등 SSG랜더스 선수들과의 그라운드 랜선 사인회도 열린다.

경기 시작 전 인천 SSG랜더스 필드 라이브 존에서 진행되는 랜선 사인회는 대면 사인회가 어려운 시기에 화상 카메라를 통해 SSG랜더스 선수들을 볼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허니버터 V칩’ 단독 선출시

해태 허니버터칩과 이색 컬래버

롯데마트가 이색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스낵시장 1위 메가히트제품인 ‘해태 허니버터칩’과의 컬래버를 준비한 것.

롯데마트는 허니버터칩의 진한 단짠 풍미를 V컷 감자튀김으로 즐길 수 있는 꿀조합 컬래버 상품인 ‘허니버터 V칩’을 24일 단독으로 선출시켰다.

‘허니버터 V칩’은 세계적인 냉동 감자튀김 회사인 맥케인의 ‘V컷’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V컷이란 신선한 감자를 V자 모양으로 커팅한 것으로 기존 감자튀김보다 튀김 면적이 넓어 바삭한

맛을 더욱 오래 즐길 수 있다. 또한 V컷 굴곡 사이로 단짠 시즈닝이 더 잘 배여 허니버터 본연의 풍미를 진하게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5월 27일 대한제분과 협업하여 ‘곰표 치킨 너겟’을 단독으로 선출시켰고, 단 20일 만에 2만여개가 판매되는 등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한제분의 ‘곰표’는 최근 레트로 열풍을 타고 의류, 가방, 맥주와 막걸리까지 출시하는 컬래버 제품마다 MZ세대에게 사랑받아왔다. 특히 ‘곰표 치킨 너겟’은 맥주 시장의 품질 대란 대표 주자인 ‘곰표 밀맥주’와 푸드 페어링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리아 벌크업 시즌2 제품 추가

롯데리아가 지난 5월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핫크리스피버거의 더블 제품 라인업 확대한 시즌 한정 메뉴 벌크업 시즌1에 이어 시즌2 한정 제품을 추가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00원 벌크업 시즌1’ 한정 메뉴로 선보인 더블 핫크리스피버거와 더블 핫크레이지버거는 약 3주간 100만개 이상 판매됐다. 이어 선보이는 시즌2는 지난 4월 출시한 치즈No.5버거의 패티와 치즈를 추가한 더블 치즈No.5 제품으로 선보인다.

롯데리아는 이번 더블 치즈 No.5는 시즌1 한정 제품인 기존 더블 핫크리스피버거와 함께 익월 14일까지 판매된다. /조효정 기자

메디톡스, 'MBA-P01' 임상3 상 돌입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비동물성 원료 사용... "내년 출시 목표" 있다.

메디톡스코리아가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의 임상 3상에 돌입한다.

메디톡스 계열사 메디톡스코리아는 메디톡스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총 집결해 개발한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MBA-P01'의 임상 3상 시험 계획(IND)을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메디톡스코리아는 국내 4개 의료기관에서 총 318명의 중등증 및 중증의 기간 주름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MBA-P01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신 제제 분야를 연구해온 메디톡스의 R&D 역량이 총 집결된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다.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 2018년부터 관련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하게 됐다.

MBA-P01은 동결 건조 제형의 기존 보툴리눔 독신 제제와 달리 새로운 제조공정을 적용한 원액을 사용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 생산 수율과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 제조과정 중 보툴리눔 균주 배양 단계에서 사용되는 동물 유래 물질 단백질 대신 비동물성 원료 배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롯데홈쇼핑, 디지털 신기술 생방송서 활용

해외명소·설원 등 현장 생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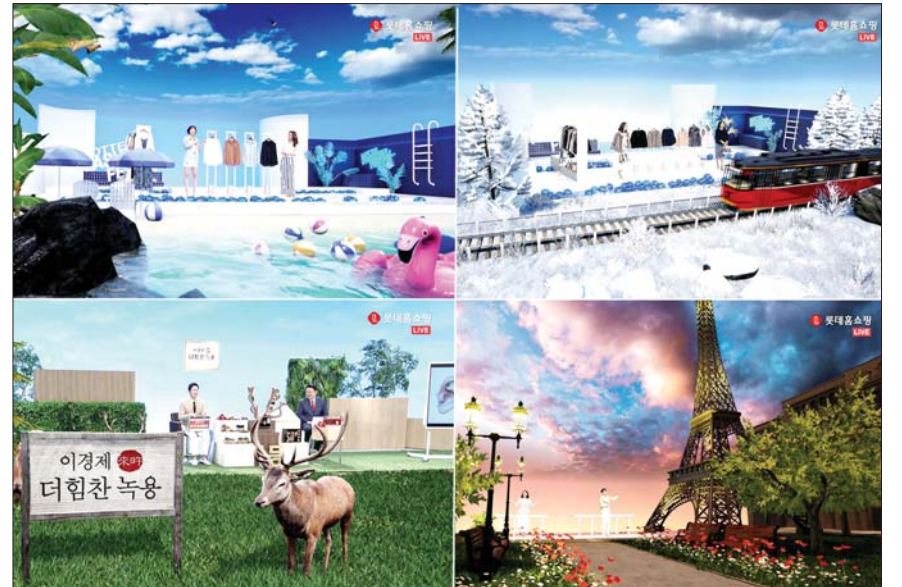
홈쇼핑에 VR·AR 등 신기술 접목
언리얼 엔진 등 최신 장비 도입
카테고리별 가상 사물·공간 구현

롯데홈쇼핑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을 TV홈쇼핑 생방송에도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경험을 선사한다.

롯데홈쇼핑은 가상 피팅 서비스 '리얼피팅', 플래그십 매장을 구현한 'VR 스트리트' 등 모바일 채널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최근 언택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가상체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TV홈쇼핑 생방송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에 구현하는 '언리얼 엔진' 등 최신 기술과 장비를 도입했으며, 전문 제작 인력을 통해 방송 영상의 차별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식품, 여행, 패션 등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분석해 가상의 사물과 공간을 스튜디오에 재현하고 있다. '이경제 더힘찬 녹용', '초유콜라겐 프로틴' 등 건강식품 방송에서는 원료와 효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현실적으로 구현했다. 현장감이 중요한 여행상품 방송에서는 현지 랜드마크를 비롯한 가상



롯데홈쇼핑이 VR,AR 등 디지털 신기술 생방송 적용을 확대했다.

/롯데홈쇼핑

건축물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롯데호텔 제주' 판매 방송에서는 호텔 전경과 수영장을, 지난 3월 '참좋은여행 희망패키지' 론칭 방송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도 선보였다.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패션 페스타' 특집전에서는 AR 특집 방송을 총 7회 진행했다. 가상의 야외 수영장을 배경으로 '폴앤조', '조르주레쉬' 등 단독 브랜드 여름 신상품을 판매했으며, '진도 모피', '씨티지 양모 베스트' 등 역시 신상품 방송에서는 설원을 스튜디오에 구현했다. 해당 방송은 '패션 페스타' 전체 방송의 평균 주문건수와 비교해 50% 이상 높은 실적을 보였다.

롯데홈쇼핑은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

하고 있다. 특히 기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올해 더위가 전년보다 2주일씩 시작될 것으로 전망, 여름 식품과 가전을 일찍 편성해 호실적을 거뒀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창문형 에어컨을 시작으로 계절가전 판매를 약 2주 앞당겨 4월 초부터 편성했다. 결과, '신일 서클레이터' 3회 방송에서 주문금액 14억 원을 달성하는 등 4월 한달~5월 첫주 누적금액이 20억 원을 기록했다.

이제껏 롯데홈쇼핑 방송운영부만장은 "TV홈쇼핑뿐만 아니라 티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상품 주목도를 높이고, 쇼핑의 재미까지 제공하며 차별화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미약품 'HM15211' 희귀 간질환 치료효과 확인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원발 경화성·담즙성 담관염 개선

한미약품이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HM15211)를 간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23~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럽간학회(EASL) 국제 학술행사(ILC)에서 HM15211의 NASH 치료 및 간 희귀질환 치료 효과, 기전 확인 등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HM15211은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분비 및 식욕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분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들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미약품은 2020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원발 경화성 담관염(PSC)과 원발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HM15211의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PSC와 PBC 모델에 HM15211을 투약한 후 측정된 간 섬유화 지표 모두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며 그 효능이 경쟁 약물로 알려진 오메티콜산보다 우수했다. 또한 간 문맥 염증 및 조직괴사율을 낮추는 등 조직학적인 간 지표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추가 연구에서는 기존에 확인했던 직접적인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와 더불어 HM15211이 간 내 담즙산 생성도를 조절한다는 기전을 새롭게 규명했다.

/이세경 기자

스파오 '리슬' 컬래버 상품 출시

이랜드월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가 오는 25일 한복 브랜드 '리슬'과 협업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

스파오와 리슬이 협업해 출시하는 이번 생활 한복 컬렉션(사진)은 총 10종의 의류와 잡화류로 구성된다. 의류는 전통 매화와 대나무 무늬 모티브의 패턴을 적용한 한복 로브 2종과 과자마 6종으로 선보이고, 잡화류는 노리개 장



식 2종으로 구성해 출시한다.

이번 협업 상품은 SPA 브랜드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생활 한복 컬렉션으로, 의류는 3만 9900원부터 6만 9900원의 가격에, 잡화류는 1만 2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한복을 접해볼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호주 난임센터 '시티 퍼틸리티' 협력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 서비스 제공

차바이오텍이 국내 최초로 호주 '유전체 분석' 시장에 진출한다. 호주 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난임 환자들을 도와 정상적인 임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차바이오그룹 글로벌 네트워크 중 호주의 난임센터인 시티 퍼틸리티와 협력해 호주 난임환자들에게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PG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티 퍼틸리티는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등 호주 주요 5개 도시에서 8개의 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염색체 이상으로 임신 실패가 의심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우려되는 부부를 대상으로 '착상전 배아 유전



차바이오텍 서울역 유전체센터 강인수 센터장(왼쪽)이 연구원과 함께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검사'를 시행한다. 유전적으로 염색체가 정상인 건강한 배아를 선별해 시험관아기 기술의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호주는 난임환자의 증가로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그동안 유럽에 검사를 의뢰해 왔다.

시티 퍼틸리티는 여러 유전체 분석 기관을 비교·평가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바이오그룹의 난임 기술을 활용해 유전체 분석·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바이오텍과 계약을 맺고 검사를 의뢰하게 됐다.

차바이오텍은 2020년 말 유전체사업 본부를 발족시켜 유전체 분석·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착상전 배아 유전 검사'를 진행하는 차바이오텍 서울역 유전체센터는 경력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의료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차바이오텍은 호주를 시작으로 유전체 진단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차바이오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펙수프라잔' 중남미 4개국 진출

콜롬비아 바이오파스사와 340억 계약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이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4개국에 추가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콜롬비아 바이오파스사

와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칠레에서의 펙수프라잔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약 340억 원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현지 국가들에서 펙수프라잔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파스사에 부여했다. 4개 국가의 소화기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300억 원(2019년 아이큐비아 기준)에 달한다. 양사는 2024년까지 계약 국가들에서 펙수프라잔의 현지 허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바이오파스사가 현지 임상 및 허가 취득 절차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25일(금)
음력 : 5월 16일

수도권 날씨
20~27℃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제2의 인생을 위한 놀자&날자 아카데미 9월 개강 안내



[중장년 코로나 이후에 여가활용형 교육과정 관심증가]

-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을 사회공헌활동 및 여가활동과 연계
- 여가활동을 창직과 연계한 과정
- 전문강사, 1인기업 프로강사, 유튜버전문가, 작가, 저자, 1인기업가 지망자



■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 9월6일~10월25일 매주월요일 14:00~17:00(3시간)	유튜버(1인 영상미디어) 및 세대공감 SNS과정
· 9월8일~10월27일 매주수요일 14:00~17:00(3시간)	글쓰기 저자 및 강사로 1인기업가 및 창직전문가 과정
· 9월9일~10월28일 매주목요일 14:00~17:00(3시간)	문화재 해설사 및 여행 플래너과정
· 9월10일~10월29일 매주금요일 14:00~17:00(3시간)	리스타트 카운슬러 전문자격증과정(퇴직준비교육)

※ 지방 교육생이나 강의장에 출석이 어려운분은 줌(화상수업)으로 교육가능



■ 교육주관: 중앙이아이피(주) 다가치포럼사회적협동조합

■ 교육문의

- 중앙이아이피 : 홈페이지:www.jeip.co.kr 이메일:jeipceo@hanmail.net
블러그:https://blog.naver.com/jeip 02-749-7043

-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 : 홈페이지:www.dagachi.org 이메일:coop@dagachi.org
02-3674-7722 / 팩스 02-3674-7724

■ 교육장소: 대학로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장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13 주호빌딩 302호



현대차그룹, 여의샨강생태공원 재정비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와 손 잡고 여의도 한강변의 여의샨강 생태공원 재정비를 통한 친환경 사회공헌에 나선다. 현대차 그룹은 23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여의샨강생태공원 친환경적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신용복 본부장,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조은미 대표. /현대차그룹



GS리테일, 해병대에 의류건조기 50대 기증

GS리테일은 6·25 발발 71주년을 앞두고 이달 23~24일 양일간 백령도·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하여 군장병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8500만원 상당의 의류건조기 50대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GS리테일 편익점사업부장 오진석부사장(오른쪽)과 연평부대장이 해병대 장병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리테일



OK금융, 안창림 유도선수 올림픽 메달 땀 포상금

OK금융그룹은 재일교포 3세 출신 유도선수인 안창림에게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시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획득 시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메달과 동메달의 포상금은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이다. 지난 1월 후원 계약 연장 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안창림 선수가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OK금융그룹



홈플러스-아름다운가게 아동의류 착한소비 특별전

홈플러스는 서울 화곡동 아름다운가게 강서화곡점에서 자사의 사회공헌재단인 '홈플러스 e파란재단'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착한소비 챌린지 아동의류 특별전'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아름다운가게를 찾은 시민들은 신상품과 유사한 품질의 샘플의류를 알뜰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 수익금은 소외이웃들을 위해 쓰여지는 '착한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됐다. /홈플러스



롯데칠성, 남산에 클라우드 어반 그린 야드 조성

롯데칠성음료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남산 N서울타워 일대에 '클라우드 어반 그린야드(Kloud urban green yard)'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 어반 그린야드'는 클라우드 레터링 테이블, 벤치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테라스 데크광장, 전망대, 메인바 등 N서울타워 일대 공간을 꾸몄다. /롯데칠성

싸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없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데일리로 마실 수 있는 피노누아는 정말 없는거야?”

최근 저녁자리에서 누군가가 푸념했다. 레드와인으로 보면 카베네 소비뇽과 메를로 같은 품종은 그가 격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와인이 종종 있다. 반면 피노누아는 그런 보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세상 천지에는 낚고 찾아보면 정 없겠나만은 대부분의 경우 괜찮은 와인을 만났다 싶으면 생각보다 가격이 높고,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피노누아 특유의 매력에 죽은 와인이다. 품질이 조금만 더 좋아져도 가격은 배로 뛴다. 그래서 와인애호가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다. 비싸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있지만 싸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없다고.

이유는 사람으로 치면 예민한 품종이어서다.



(왼쪽부터)레인 소노마 코스트 피노누아, 부샤 빼레 에 피스 본 뒤 샤토 1등급, 칼레라 센트럴 코스트 피노누아, 롱반 피노누아. /나라셀라

영화 사이드웨이(Sideways)를 보면 주인공 마일즈는 와인 가운데서도 피노누아 품종을 거의 광적으로 좋아한다. 마일즈는 피노누아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재배하기가 힘든 품종이잖아요. 껍질은 얇지만 성장이 빠르고, 카베네와는 달리 아무 환경에서나 못 자라서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고, 인내심 없는 재배가 불가능한 품종이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돌봐줘야만 포도알이 굵어지고, 그렇게 잘 열리면 그 맛과 오묘한 향이 태고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줘요.”

까다롭지만 제대로 만든 피노누

아를 일단 한 번 맛보면 안다. 왜들 피노누아에 빠지는지. 투명한 듯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잘 익은 과실향과 꽃향, 숙성에 따른 복합적인 아로마가 가득하다. 입에서는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레인 소노마 코스트 피노누아’는 한 해에 2만4000명만 만든다. ‘좋은 와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워내는 것’이라는 철학처럼 와인을 만드는데 있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다. 100% 손으로 포도를 따고, 그것도 예민한 피노누아를 위해 선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밤에 수확한

다. 레드 체리와 딸기같은 붉은 과실향과 함께 장미와 제비꽃의 향이 잔을 채운다.

‘부샤 빼레 에 피스 본 뒤 샤토 1등급’은 프랑스 부르그뉴의 본에 위치한 열 군데의 1등급 포도밭에서 기른 포도를 각각 양조한 후 블렌딩해 만든다. 단일 포도밭이 아니니 빈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련된 붉은 과실의 풍미가 잘 살아있다.

‘칼레라 센트럴 코스트 피노누아’는 캘리포니아의 로마네 콩티로도 불린다. 센트럴 코스트 내에 몬트레이와 산타바바라 등 여러 원산지별로 선택된 최상급의 포도밭의 포도로 만든다. 매혹적인 아로마와 매끈한 질감, 생기 넘치는 과일과 향신료 풍미를 보여준다.

‘롱반 피노누아’는 그 찾기 힘든다는 가성비비 피노누아 와인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과 중부 해안가의 포도밭에서 조달한 포도를 섞어 만들며, 선선하면서도 햇살 가득한 기후가 주는 맑은 산도와 붉은 과실의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LG전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코로나 극복 지원

한국전 참전용사 100여명에 생활지원금·손소독제 등 전달

LG전자가 올해에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 감사를 전했다.

LG전자는 23일 (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서 100여명에 생활지원금과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에스타파노스 참전용사협회 부회장, 양승환 LG전자 에티오피아지점장, 박용규 월드투게더 에티오피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이달부터 아디스아바바 참전용사 마을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을 내 학교에 화장실, 식수시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한다. 이는



양승환 LG전자 에티오피아지점장(왼쪽 첫 번째)이 협회에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지난해 10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시작한 희망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희망마을 사업은 LG전자와 한국헤비타트가 함께 참전용사 마을 내 주거, 위생, 교육 등을 개선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후손의 자립을 돕는 3년 프로젝트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3월부터 참전용사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내 낡고 오래된 집을

보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에 배수로뿐 아니라 공동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14년에도 LG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세운 바 있다. 매년 100명의 입학생을 선발해 전자제

품 수리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약 3년 동안 국가자격증 취득,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전체 신입생 중 15%에 해당하는 인원은 참전용사 후손으로 배정하고 있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비정부기구(NGO)인 월드투게더와 함께 생활지원금, 장학금,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LG전자대의협력담당 윤대식 전무는 “에티오피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며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송해 선생,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 위촉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본명 송복희(사진) 선생이 24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의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송해 선생은 한국전쟁(6·25) 당시 고향 황해도 해주를 떠나 통신병으로 입대해 1953년 7월 27일 휴전 전문을 직접 타전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국유단은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오피니언 리더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자자유가족 ‘유전자(DNA)시료 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향후 송해 선생은 향후 국유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유해발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모델, 각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사업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인사

◆한국투자증권 ◇부서장 신임 △투자상품관리부장 서형석

부음

▲조남진(전 강원일보 사장)씨 별세, 이문자씨 남편상, 조구(풍양 조씨 종친회 근무)·소연(진주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지연씨 부친상, 김동완(현대자동차 총천 고려엔지니어링 부장)씨 장인상 = 24일 오전 5시, 춘천 호반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33-252-0046, 010-7181-1289

▲조남홍(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씨 별세, 정영선씨 남편상, 조상연·조수연씨 부친상, 조성빈·강성정·조하은·강나영씨 조부상 = 2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하늘나라공원. 02-3410-3151

메트로신문 교대역 배포도우미 모집 010-5241-6694

잊혀진 금감원... 원장 공백 장기화



이정혁
西村브리핑

#. 지난 3월 3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꽤나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짐작이 간다. '왜 부자는 낮은 이자로 혜택 받고, 가난한 이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가'라는 단순한 문제 의식이 뒤따랐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구조적 모순'으로 본 듯한 발언은 금융 상식을 근본부터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저신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적용받는 것은 금융 상식 이전에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발언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금융 무지' 논란이 흔쾌하게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 문 대통령의 '금융 무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계기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의 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현 전 원장이 지난 5월 7일 퇴임한 후 50일 가까이 하마평만 무성한 채 금감원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이전 금감원장 선임 때는 너무 빨라서 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 정무 첫 민간 금감원장인 최흥식 원장이 취임 6개월만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물러나자 20일 만에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기식 원장이 셀프 후원 문제로 취임 2주만에 물러났을 때도 20일만에 윤석현 전 송실대 교수를 그 자리에 앉혔다. 문제는 중도 낙마했던 다른 원장들과 달리 윤 전 원장은 3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도 자리 변동이 없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 전 원장 퇴임 전과 직후에 몇몇 후보군을 골라 청와대에 보고하는 절차는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감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상황이 만약 골프나 당구 등의 스포츠 시합이었다면 '늑장 플레이'로 페널티 카드를 받았을 것이다. 금감원장 인사가 방치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금감원을 잊은 것 아니냐"는 웃픈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 안정보고서'를 통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경고했다. 20, 30대까지 '영끌'로 아파트 매입에 나서 1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폭등하고, '빚투'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주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것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다. 글로벌 경제는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각종 정부의 유동성 투하 탓 때문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살얼음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위, 금감원, 한은의 역할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금감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과 국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스&마켓부 대기자 lnh@metroseoul.co.kr

증권사 리포트와 '매도 의견'



기지수첩
박미경
(파이낸스&마켓부)

국내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매도(sell)'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애널리스트는 매도 대신 투자 의견 '중립'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목표주가를 낮춰 제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아예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기도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99.7%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반면 CLSA,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기업 매도 의견 비율은

20%가 넘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기업과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업탐방 금지'라는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다. 5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4771만개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1인당 1계좌 시대 가 열린 셈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일색이라며, 차라리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리서치센터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순간,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란 본연의 역할이 희미해지는 셈이다. 리서치센터는 투자은행(IB)과 달리 돈

을 버는 곳이 아니다. 투자자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곳이다. 애널리스트가 투자자 눈치를 보지 않도록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 보고서에 대한 비중이 높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라 매매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주어지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존재한다. 물론 국내 증권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국계 증권사와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증권사의 법인영업 부서와 리서치 부서 사이에는 실질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널리스트가 양질의 리서치 자료를 소신껏 생산해낼 수 있도록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mikyung96@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니 어쩌나. 48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60년생 어느 경제학자는 돈은 생활의 피라 했다. 72년생 욕심이 생기기 번뇌도 따라온다. 84년생 운이 좋으니 평소에 쌓은 실력을 발휘한다.



37년생 비몽은 흥함을 길함으로 바꾸는 청경. 49년생 손풍에 하루가 유유자적. 61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 73년생 부귀와 빈천은 명예 달린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했다. 85년생 앙타리나 새로운 만남을 조심.



38년생 밝은 기운은 더욱 빛을 향해 나간다. 50년생 부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바라는 마음. 62년생 보람 있는 하루. 74년생 결혼하여 과소비가 급증되니 가계부를 생활화 하여 보라. 86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39년생 남에 대해 관대함을 갖자. 51년생 파란색과 숫자 1이 오늘 행운을 준다. 63년생 달빛이 찬란하니 좋은 옷을 입고 나가본다. 75년생 긴 머리 소녀처럼 아름다운 인연이 오다. 87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40년생 기도의 가피는 무한대이다. 52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이다. 76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 88년생 튀려다가 주변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41년생 농업이 천하지근본이라 했듯이 땅을 소중히. 53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라. 6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77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니 부단한 노력이 중요. 89년생 상대 난폭운전을 주의.



42년생 마음이 선하면 하늘도 감응한다. 54년생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6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안 가는 것이 좋다. 78년생 직장과 주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90년생 노력의 결과가 좋다.



43년생 지성이면 감천이 된다. 55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니 서글퍼 마라. 6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7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이나 영양섭취는 자제. 91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의견충돌예상.



44년생 비가오기를 학수고대하듯 기다려진다. 5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68년생 입으로도 웃으면 화가 몰라날 것이다. 80년생 기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2년생 도박성으로 가차관이 흔들린다.



45년생 면역력이 떨어지니 비타민을 찾는다. 57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보살피라. 69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좀 지체. 8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참아야 한다. 93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46년생 자손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기쁘다. 58년생 직장과 가족을 위해 좀 더 기여하고 싶다. 70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2년생 시간은 금이니 허비하지 말고 활용을 잘 해야 한다. 94년생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47년생 인생의 의미는 운명론에 빠지지만 해서도 의미 없다. 59년생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 71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3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95년생 내 마음의 연등을 밝히듯 부모님께 안부를.



김상회의四季
초과일 연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봉축행사인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장관인 연등축제가 이 년째 열리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월에 오게 되는 초과일 행사는 종교적 의미 그 이상의 행사이다. 무명에서 싸여 생로병사의 고(苦)를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순간순간 행복과 함께 하며 스스로 자유롭게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한 계절이다. 싱그러운 연등이 사방에 펼쳐지고 하늘은 더없이 화창할 때 색색의 연등이 도량 안팎에 걸려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극락이 바로 예인가 싶은 마음이다. 추석을 가르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기본 기원과 감탄이 있다. 초과일 역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과일 때만 같아라'라는 감탄도 그리 과한 경탄은 아니리라. 게다가 연등에 가족의 이름과 발원을 적어 연등 꼬리표를 붙이는 그 마음은 순일하다. 평소 복덕의 원인을 지움에 게으르면서도 이런 바램을 적는 게 좀 욕심이 아닐까? 하는 소심한 가책을 살짝 가져보기도 한다.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달면서 절에 보시도 올릴 수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이 된다. 필자가 주식하는 월광사에도 음력 삼월 들어서면서부터 연등을 달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고 형편이 어려운 신도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 월광사 신도님들께서는 스스로 인연 있는 분들이 등을 달고 있다. 신도분들은 알아서 각각의 처지에 맞게 보시금을 올려주신다. 정성스럽게 등을 달면서 축원 또한 함께 올린다. 불법적으로나 증생적으로나 복과 지혜가 항상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정답

6	9	8	1	9	7	2	8	1
7	9	2	8	6	1	1	8	9
1	1	8	8	2	9	6	9	7
8	7	6	2	1	9	9	1	8
8	2	9	6	9	1	1	7	8
1	1	9	7	8	8	9	6	2
9	6	1	1	8	8	7	2	9
9	8	7	9	1	2	8	1	6
2	8	1	9	7	6	8	9	1

1	9	9	1	6	7	8	2	8
2	7	8	8	9	1	1	6	9
6	1	8	8	2	9	1	9	7
8	9	1	2	1	9	6	7	8
8	2	7	6	9	1	8	1	9
9	1	6	7	8	8	2	9	1
7	6	2	9	1	8	9	8	1
9	8	9	1	8	6	7	1	2
1	8	1	9	7	2	9	8	6

과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726호	

아파트의 미학(美學)

<16>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의 조경은 새 입주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지난 22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새 아파트에 이사 오는 주민들로 분주했다. 단지 내 여기저기 이삿짐 트럭이 주차됐다. 유선형 외관의 아파트와 자연 속 계곡을 재현한 정원의 모습은 아파트의 가치를 더했다.



지난 22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문주.

계곡에 발 담그며 ‘休~’ 속세 떠난 신선처럼 거닐어 볼까

지하 4~지상 35층, 6개동 총 848가구
비정형 문주에 강남 첫 물결무늬 외관
4개 협곡, 산책길에 ‘숲속을 거니는 듯’
야외에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클린존’
‘iF 디자인 어워드 2021’서 본상 수상
102동 35층에 ‘스카이라운지’ 조성
작은도서관 운영… 한강 등 ‘한눈에’

현대건설에 따르면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삼호가든맨션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지난 2015년 현대건설이 프리미엄 브랜드 THE H(디에이치)를 런칭해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한 단지다. 건폐율 17.96%, 용적률 299.49%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의 6개 동, 총 848가구 규모로 재탄생해 이달 15일 입주를 시작했다.

비정형 문주와 강남 최초로 적용된 물결무늬의 외관이 가장 눈에 띄었다. 거대한 규모에 유선형으로 디자인된 주출입구 문주와 웨이브형으로 특화된 외관은 좁고 긴 형태의 단지 배치로 대로변에 접한 면적이 적은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도로변 가시성을 극대화하고 고급스러움을 담아냈다는 평이다.

현장에서 만난 운영식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분양관리부장은 “3D 설계를 적용해 16개의 대형 철체에 약 2400여개 스테인레스 스틸 판넬을 이어 붙여 만든 곡선 모양의 문주는 야간에는 1만2209개의 조명이 불을 밝히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고 전했다.

정문에서 우측으로 진입해 단지 내 조경을 살폈다. 마치 계곡에 온 것 같은 느낌의 수경시설이 압권이다. 꽃과 나무 사이로 4개의 협곡과 경관석, 산책로가 연출돼 마치 숲속 계곡을 거든 듯한 느낌이다. 이밖에 각각 소형분수가 설치돼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선사했다.

디에이치 반포라클라스에는 정원 곳곳에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단지 곳곳에 전시됐다. 그중 네덜란드 작가 카렐 마르틴스가 디자인한 휴게 공간 ‘클라우드 워크’는 입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차지했다.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어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입주민들이 많았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다양한 높이의 마운딩을 활용한 놀이시설과 대형 슬라이드로 다양한 체험놀이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됐다. 여기에 야외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클린존’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공간활용도 뛰어났다. 각 동마다 배치된 필로티와 조정 공간 사이에는 이국적인 힐링공간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운영식 분양관리부장의 안내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을 살폈다. 사우나, 헬스장, 실내 골프장, 암벽등반시설은 물론 연회장과 스테디룸, 음악연습실 등이 마련됐다.

또한 102동에 설치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가면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만의 명품 스카이라운지가 나온다. 이곳은 작은 도서관

으로 운영돼 한강과 남산타워, 서리풀공원 등 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일반분양자임주리카페 대표는 “전망이 좋아 거실에서도 이렇게 멋진 조경을 감상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며 “공원조망권이 훌륭해 자산가치가 뛰어난 아파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서울중앙지법,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철 9호선 사평역에서 도보로 3분 가량 소요된다. 단지 맞은편에는 서원초와 원명초, 반포고가 위치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유니콘 모양의 조합놀이대(위)와 힐링공간.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서울시민 512명, 행안부에 ‘정치편향·혈세납비’ TBS 감사 청구
▲ 전주 간 박용진 “이재명과 양자구도, 경선 흥행 만들겠다” /사진 뉴시스

▲ 전재수,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尹장모 부동산 의혹 많아”
▲ 국수분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2명 추가…총 113명”



▲ ‘이성교제’ 해사생도 47명 징계…인권위 “사생활 침해”
▲ 화살머리고지 남북 유해발굴 끝내 불발…北 끝까지 불응 /사진 뉴시스

중국 철학, 한국인 정신세계 저변 이해에 도움



리더의 책장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관세청장



중국철학사

중국철학사(상) 까치글방, 풍우란 지음, 박성규 옮김.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역사를 살아온 조상들의 의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고대 중국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2500년 전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역대 중국 사상가들의 이론을 쉽게 풀이하고, 그 당시 사회상황을 설명한 풍우란 선생의 역작인 “중국철학사 상·하” 두 권의 책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인들은 먼저 “철학이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서구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원조 철학자로 배웠다. 로마제국 멸망후 기독교가 중세의 암흑시대를 가져오면서 서구에서도 철학의 부재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이후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 프랑스의 데카르트, 17세기와 18세기 계몽시대의 토마스 홉스, 로크, 루소, 19세기의 독일의 헤겔 등 서양 철학사의 훌륭한 학자로 기억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원전 6세기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맹자와 순자를 철학자로 불러도 되는지?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의 인물들인 묵경을 저술한 묵자, 도덕경을 저술한 노자, 노장

사상의 계승자인 장자, 법가를 발전시킨 상앙과 한비자, 현재에도 한국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음양오행설을 창시한 주연, 중국에서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도참사상으로 무시되고 있는 풍수지리설의 창시자를 철학자로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선조에 영향을 준 중국 사상의 대표적인 학파는 유학과 노장사상이다.

중국 사상의 대표적 학파 유학·노장사상… 우리 선조에 영향 중 철학, 윤리학-정신수양의 道 추구… 물질문명 천시 특징

서양철학은 자연계와 인간사회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와 원칙을 탐구함에 따라 수학과 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중국의 철학은 윤리학과 개인의 정신수양의 道(道)를 추구함에 따라 물질문명을 천시한 점이 특징이다.

기원전 6세기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고 봉건제후의 열강이 끊임없이 영토전쟁을 벌이던 춘추시대의 사상가이다. 당시는 많은 작은 제후국들이 멸망하고 멸망한 국가의 귀족들이 평민신분으로 강

등되어 능력을 발휘하여 관리직을 추구하던 시기다. 공자는 중국 최초로 학원을 만들어 학비를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봉건 제후의 정치자문을 담당했던 직업 교육가이며 정치 사상가이다.

공자는 혼란한 정치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나라 건국자인 주 문왕과 무왕, 전설적인 물인 요순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시기로

다. 맹자 사후 200년이 지난 후 한나라의 동중서가 공자를 스승의 경지에서 제왕의 경지로 신격화하고, 논어와 춘추 등 공자의 저서를 종교의 경전으로 신격화함에 따라 중국사상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경직화되기 시작했다. 공자 사후 1700년이 지난 12세기 남송의 주희가 1000년이상 침체된 공자의 유학을 “성리학”으로 재해석했다. 송나라의 성리학은 원나라 말기 고려의 안향이 들여와서 정도전에 의해 조선의 건국이념이 됐다. 병자호란과 명나라 멸망 후 소중화의 계승을 추구한 송시열 등 ‘노론’ 세력에 의해 계승됐다.

유학사상의 배경은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되는 신분사회의 학문으로,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며, 사람의 물욕과 재물의 추구동기를 비하함에 따라 19세기말 서구 자본주의와 상업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인 정신적 DNA는 아마도 중앙아시아의 도래된 토속 사머니즘사상,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성리학, 노자와 장자의 도학사상,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건너 온 불교사상, 근세 서구에서 전수된 기독교 등이 혼합돼 있다고 생각한다. 풍우란 교수의 중국사상을 통해 우리의 정신세계의 저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주말은 책과 함께

불의는 죽음보다 빨리 달린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2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가수 나훈아는 지난해 9집 정규 음반 ‘아홉 이야기’를 발표하며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신곡을 내놨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 너 자신을 알라며 특 내뽐고 간 말을 /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하고 많은 형 중에 왜 하필 테스형인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신을 믿지 않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어찌다 시대의 희생양이 돼 제물로 바쳐진 걸까? 역사의 후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참패와 스파르타의 지배, 30인 전체자의 공포정치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시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지음/황문수 옮김/문예출판사

민주정치로 돌아온 아테네는 오직 복고만을 꿈꾸며 새로운 진취성을 무시했다.

역사는 “이러한 반동의 시대가 됐을 때 많은 사이비 보수 애국자들은 불행과 몰락의 원인을 새로운 사상, 특히 무신앙에서 구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침묵이 최선의 호신책인 무지와 선동의 와중에

소크라테스는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 결과 그는 아테네 몰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심판대에 서게 됐다.

재판관들 앞에 납작 엎드렸다던 무죄 판결을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재판장에 끌려나온 그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의 언동이 솔직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를 받게 됐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증오는 바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여,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 부정은 죽음보다 빨리 달린다”는 말을 남긴다. 필멸과 불멸 중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테스형은 묻는다.

328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유영수 지음/휴머니스트

일본은 선진국이다. 사법적 약자의 편에서 지 않는 모습은 미투 운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9년 3월 일본 각지의 지방법원은 전국의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플라워 시위’를 벌였다. 일본 사회에선 여성을 ‘2등 시민’ 취급하는 의식이 뿌리 깊다.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천황 원수, 재군비, 기본 인권 제한, 가족제도 부활’을 내세우며 제국시대의 가부장적 질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었다. 우머노믹스를 앞세운 아베 정부는 파트 타임 노동자만을 대거 양산해냈다. 과거 질서를 쇠신하지 못하는 일본에서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296쪽. 1만7000원.

직장인 A씨

최혜인 지음/봄름

우리 주변엔 “이 거지 같은 회사, 내일 당장 때려치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쉽게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왜일까? 직장갑질 전문 노무사인 저자는 노동자가 일 중심 사고에 익숙해져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를 뒷전으로 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다 보니 막상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응하면 관철아 질 거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그친다. 책은 ‘노동자의 열심’을 사용자가 어떻게 악용하고 방관하는지 ‘노동자의 열심’이 불공평하고 무분별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가학적으로 표출되는지 까발린다. 216쪽. 1만4800원.



▲러시아, 쿠릴4도서 대규모 군사훈련…日정부 ‘항의’
▲미, 신장위구르 강제노역 연관 中 기업 규제 /사진 뉴시스

▲일자민당 간부 “스가 총리, 교체 이유 없어”
▲바이든, ‘범죄 증가 우려’ 여름철 앞두고 총기 폭력 정면 겨냥



▲미 CDC “30세 이하, 모더나·화이자 접종 후 드물게 심장 염증”
▲엘리자베스 여왕, 알현 재개…보건부장관에 “딱한 사람” /사진 뉴시스



[산업]
혼다 '파일럿'
골프백 4개도 거뜬
주행만족도 최고
08



Life

[라이프]
CJ제일제당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추진
11



흡수하고 말리고 상쾌하게 밖에서도 집에서도... 짹짹함 벗고 '에어컨' 입어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유니클로 '에어리즘'

에어리즘(AIRism)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옷을 통해 모든 이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라이프웨어(LifeWear) 철학을 바탕으로 이너웨어부터 일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매 시즌 선보이는 제품군이다.

지난 2005년 한국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10년 만인 2015년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당시 대부분의 SPA 브랜드는 싼 가격과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을 중시했는데, 유니클로는 에어리즘, 히트텍 등 기능성 의류를 전면에 내세웠다. 겨울에는 히트텍이 매출을 견인하며 '국민 내복'으로 불렸고, 여름에는 에어리즘이 있었다. 더워서 옷을 최대한 벗는다는 시기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에어리즘을 겹쳐 입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코튼 파자마 긴팔 제품 이미지.

/유니클로

◆하루 종일 산뜻... 에어리즘이 탄생하기까지

에어리즘 열풍의 배경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 이상 기후 발생이 있다. 여름에 폭염과 긴 장마 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상 기후 현상 탓에 쾌적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유니클로는 매년 심각해지는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더위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기능성 이너웨어 에어리즘을 제작했다.

에어리즘은 모든 사람의 쾌적한 실내외 활동을 위한 옷 속 환경, 즉 이너웨어의 중요성에 주목한 결과다. 먼저 2007년, 땀을 많이 흘리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건조 기능이 뛰어난 이너웨어 '실키 드라이'를 출시했으며, 이어 다음 해 여성 피부의 특성을 연구해 개발한 매끄러운 감촉의 '사라하인'을 선보였다. 이를 기점으로 유니클로는 이너웨어로 적합한 테크놀로지 소재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지속해 2012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테크놀로지 이너웨어 '에어리즘'을 첫 선을 보인다.

옷 속 환경은 피부와 옷 사이의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을 뜻하는 기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에어리즘은 땀을 흘려도 빠르게 건조되는 드라이 기능, 옷 안의 습기를 흡수 및 배출하는 흡·방습 기능, 피부가 옷에 닿았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는 접촉 냉감 기능을 통해 착용 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남녀 피부 특성에 맞춰 개발된 에어리즘 이너웨어

에어리즘은 남성과 여성의 피부 차이를 연구해 탄생한 제품으로 각 성별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땀을 더 많이 흘리는 남성을 위한 남성용 에어리즘은 세계적인 섬유 회사와 손잡고 극세 섬유를 사용해 빠르게 땀을 흡수하고 건조시킨다. 유니클로는 남성 소비자가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통기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메쉬', 봉제선 없는 '심리스' 등 다양한 라인업을 내놓고 있다. 여름철 땀이

기후변화로 기능성 이너웨어 제작 시작 드라이·방습·냉감 기능으로 쾌적함

남녀 피부차이 연구해 맞춤 기능 제공 고객 니즈 따라 매 시즌 개선된 제품 선별 에어리즘 흡수·침구류 등 라인업 확대

많아 이너웨어를 기피하던 남성들도 에어리즘 이너웨어를 일부 챙겨 입을 정도로 에어리즘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반면, 남성과 달리 여러 겹의 이너웨어를 입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류 내 습도 때문에 땀이 쉽게 차며, 땀이 식으면서 한기를 느낄 수도 있다. 유니클로는 여성의 피부를 보습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뛰어난 흡·방습성을 지닌 '큐프라'를 소재를 적용했다. 큐프라는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부드러운 여성용 이너웨어로 적합하다. 여성용 에어리즘 또한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에어리즘 캐미솔', '에어리즘 브라캐미솔', '에어리즘 U넥 T' 등의 세분화된 디자인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에어리즘 울트라 심리스 쇼츠'와 '에어리즘 심리스 V넥 브라캐미솔'은 심리스 타입으로 자극을 줄여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에어리즘

유니클로는 에어리즘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 시즌 개선된 에어리즘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업데이트된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에어리즘 마이크로 메쉬 티셔츠'와 '에어리즘 코튼 티셔츠'가 있다. 에어리즘 마이크로 메쉬 라인은 특히 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이 많은 남성 고객을 위해 메쉬 소재를 적용했다. 에어리즘 코튼 티셔츠는 한 장만 입을 수 있는 에어리즘 소재 티셔츠를 찾는 고객 요청에 따라 개발된 제품으로, 코튼이 블렌딩돼 무난하게 데

일리웨어로 활용할 수 있다. 겉면이 코튼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겉면이나 두께감 면에 있어서 단품으로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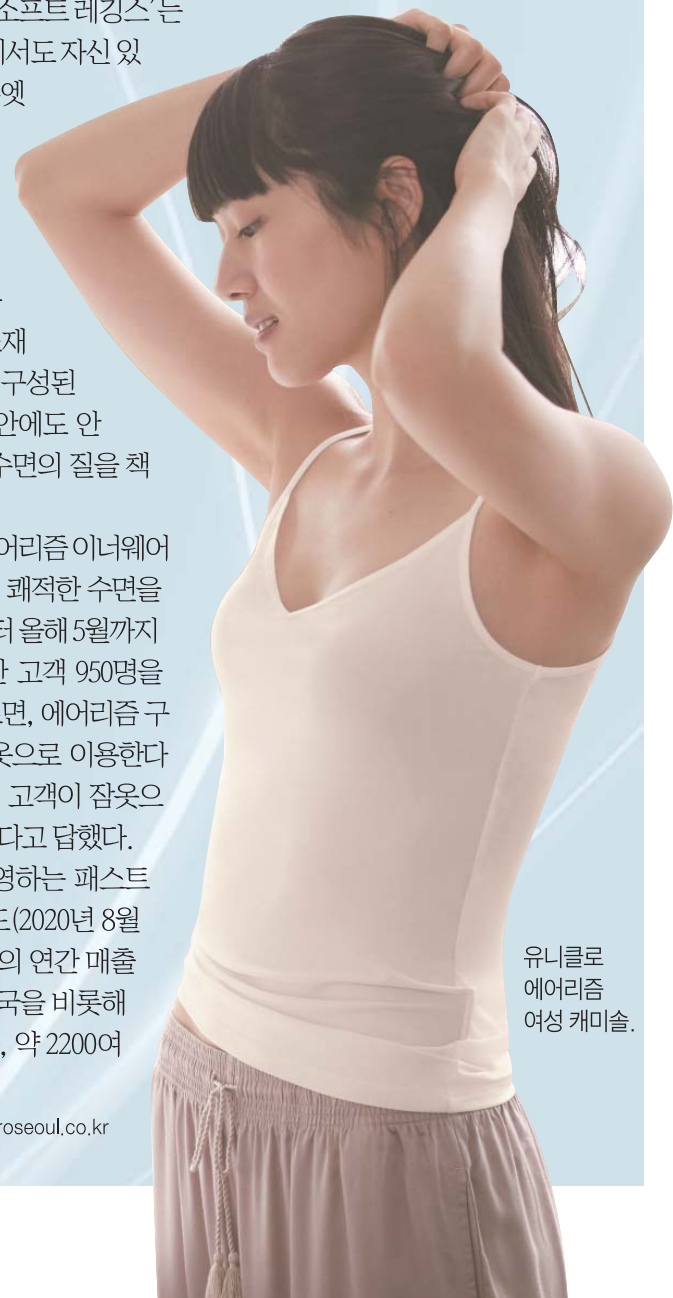
여기에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사회 트렌드에 맞춰 흡수, 스포츠웨어, 침구류 등으로 에어리즘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에어리즘 스포츠웨어 라인은 일상에서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에어리즘 UV 프로텍션 소프트 레깅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햇빛 아래에서도 자신 있는 활동을 도와주고, 세련된 실루엣에 긴 기장으로 활동성을 강화한 '에어리즘 심리스 V넥 롱 T'은 심리스 디테일로 운동성을 살렸다.

21S/S 시즌에는 에어리즘 침구류 제품도 출시했다. 에어리즘 소재의 시트와 이불커버, 베개 커버로 구성된 에어리즘 침구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들의 수면의 질을 책임진다.

에어리즘 침구류뿐만 아니라 에어리즘 이너웨어가 슬리핑웨어로도 활용되고 있어 쾌적한 수면을 돕는다. 유니클로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에어리즘 이너웨어 상품을 구매한 고객 9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에어리즘 구매 고객의 77%가 에어리즘을 잠옷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자 중 92%의 고객이 잠옷으로써 에어리즘 이너웨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유니클로를 대표 브랜드로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은 2020년 회계연도(2020년 8월 31일 마감) 기준 약 22조5000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유니클로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5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 약 2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유니클로 에어리즘 여성 캐미솔.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올림픽의날, 독도에서 외쳤다 "독도 영유권 침탈말라" /사진 뉴시스
▲ 김광현 26일·류현진 27일...한국대표 좌완, 하루 간격 출격

▲ '학교폭력'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이대로 복귀?
▲ 올 장마, 7월에 시작될 듯... "주말에도 소나기는 계속"



▲ 쿠팡 근로자들, 분노의 폭로... "화장실 갔다고 시말서" /사진 뉴시스
▲ "불법 스팸 신고, 도박 51.7% 최다... 불법대출·카드·성인물도 상위"